

3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64.63 (-16.37)	760.37 (-8.84)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981 (-0.008)	1339.40 (+1.00)

## “美 전기차 시장 성장 확산” K배터리, 생산·투자 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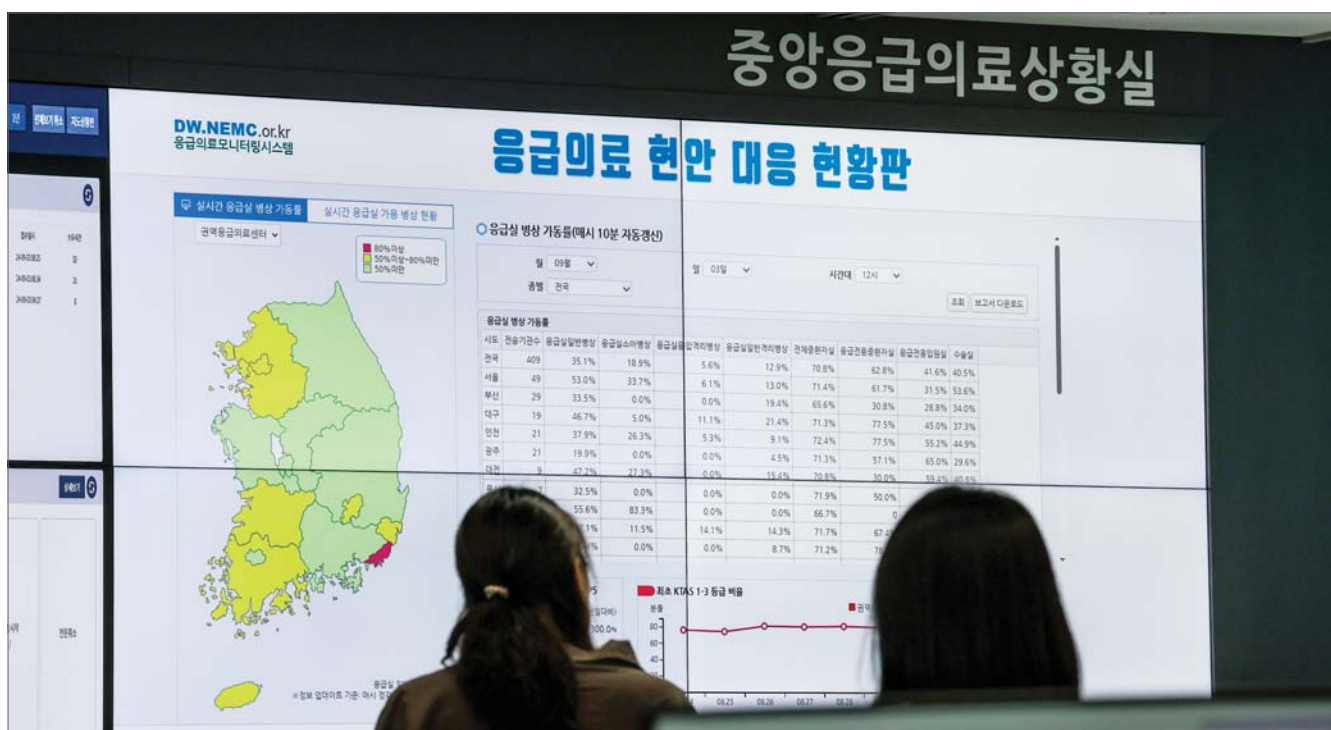
배터리업계, 전기차업황 부진에도 북미시장 연평균 30% 성장 예상 생산시설 확충 등 전략적 투자 ↑ 삼성SDI-GM과 JV 설립 본계약 전기차 배터리 생산 35억弗 투자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전기차 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생산시설 확충과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업체가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전용 공장을 건설하는 데 집중 중이다. 무엇보다 미국 중심 합작법인(JV)을 비롯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중장기적인 성장 전망이 유지된다는 긍정적 판단에서 비롯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배터리 업계는 당장의 업황 부진에도 향후 미국 시장이 글로벌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은 북미 전기차 시장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30%를 기록하며 25조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생산 기지는 대부분 북미와 유럽에 몰려 있는 만큼 각각 628GWh(기가와트시), 305GWh에 도달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은 한국 기업들이 58%를 차지할 관측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응급실은?

전국 응급실 곳곳에서 의료진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4일부터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전광판에 응급실 병실 가동률이 표시되어 있다. /뉴스시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혜택도 노리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새역공제(AMPC)는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부품 등 친환경 에너지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하면 미국 정부가 지급 하는 보조금이다. 배터리를 생산하면 1KWh당 셀 35달러, 모듈 45달러의 새역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배터리업체는 이러한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장을 노리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AMPC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는 하반기 실적 개선의 핵심으로 북미시장을 꼽으며, 이에 따라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 모터스(GM)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JV)을 설립하기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오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35억달러를 투자하며 초기 연산 27GWh 규모 공장을 설립한다. 공장 착공 시점은 이르면 올해 4분기로 알려졌다.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들어선

합작법인은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기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생산해 GM 전기차에 탑재한다. 또한 삼성 SDI는 GM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우는 발판을 마련하고 각형 배터리 채용 고객사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LG에너지솔루션, SK온도 미국 내 배터리 생산량을 늘릴 전망이다. SK온은 현대자동차와 조지아주에 2025년 양산을 목표로 35GWh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한덕수 “장병사기 진작 기대”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곧바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장병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필요하며 지정을 요청해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자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 장병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가차원의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정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 주소·신용카드 번호 버젓이... 호텔, 잇단 개인정보 유출

투숙객 정보 최대 1818건 유출 한화호텔에 과징금 1.8억 부과

호텔의 고객 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투숙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법적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고객 정보 관리 책임자들의 주체적인 윤리의식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호텔리조트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개인정보보호 관리 부실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최대 1818건의 투숙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과징금 1억8531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온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해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약 절차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 과실이 있었다. 또 시스템 사전 검증도 소홀히 한 탓에 1800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호텔의 고객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이전부터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다. 지난 6월 호텔스컴바인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총 1억원이 넘는 과징금

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호텔스컴바인은 2013년 호텔 예약 플랫폼 개발 당시 예약 정보만 조회할 수 있는 접근 권한만으로 카드 정보 조회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취약한 시스템의 구멍으로 해커의 공격을 받아 1246명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갔다.

지난해 1월, 신라호텔은 한 달 새 두 번이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내부 직원이 뉴스레터를 발송하던 중 회원 정보를 잘못 입력해 총 9만 9344건의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고객 대상 특별 프로모션 안내 메일을 보내는 중 수신자 매일 168명의 메일을 그대로 노출하고 난 뒤 불과 열흘만의 일

이다.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해외 호텔에서도 일어난다. 지난 2019년 전 세계 체인 호텔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역시 중국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5억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개인 정보 중 개인의 출입국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는 3억 2700만명의 여권 정보가 포함돼 더 논란이 일었다. 2018년에는 일본 호텔 체인인 프린스 호텔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고객 정보 12만 5000건이 해커의 공격으로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 6만 6000여건에는 고객의 이름과 주소, 신용카드 번호 등이 포함됐다.

<3면에 계속>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10년만의 ‘시진핑 방한’ 이뤄질까... 中은 “적절한 분위기” 전제  
▲ 안철수 “의료진 쓰러지기 직전... 정부 인사들, 구급차 타보길” /사진 뉴스시스

▲ 여야, ‘계엄령’ 연일 공방... “망상” VS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나냐”  
▲ 윤건영 “문-다혜씨 경제공동체? 윤과 장모가 진짜 경제공동체” 반박



▲ 이주호, 일부 교과서 ‘우편향’ 논란에 “정체성 동시 다양성도 중요” /사진 뉴스시스  
▲ 국회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 10일 실시



# 中 의존 97% '흑연' 공급망 확보... 연간 전기차 126만대분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산업부,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포스코인터내셔널, 호주 BRM과 4000만 달러 규모 투자계약 체결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 개발 투자 "흑연 공급망 상당수준 다변화"

우리나라가 연간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천연흑연을 확보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했던 흑연 공급망 위기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호주 퍼스 크라운 타워스에서 열린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광산 소유사인 호주 BRM과 4000만달러 규모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앞줄 오른쪽)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앞줄 오른쪽)와 블랙록마이닝 리차드크로스 이사회의장(앞줄 왼쪽)이 협약식을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번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열렸으며, 계약식에는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매들린 킹 호주 연방자원장관, 장인화 포스코그룹회장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

스가 이전에 투자한 750만달러에 더해 그룹사 차원에서 BRM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됐고,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 광산 개발 투자로 연간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흑연 공급망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으로 흑연 매장량 600만톤 인 세계 2위 규모 마헨게 광산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포스코그룹은 2026년부터 연간 3만톤, 2028년부터는 추가로 연간 3만톤 등 최대 연간 6만톤,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천연흑연을 확보한다.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천연흑연(음극재에 사용되는 인상흑연 등) 수입

량이 약 5만톤이며 이는 중국에 97%를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흑연 공급망이 상당한 수준으로 다변화돼 공급망 위기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정부가 지난해 2월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한 후 기업과 손발을 맞춰 흑연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로 평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투자계약으로 굳건한 한국-호주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핵심광물 중 하나인 흑연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공급망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약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원의외교로 기업의 리스크는 덜어주고 성과는 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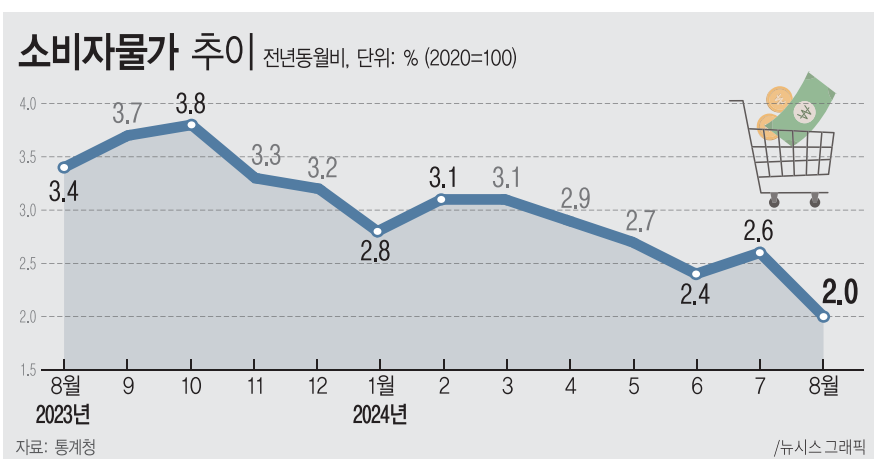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상승률 2%... 41개월來 최저폭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 동향 농산물·석유류 오름폭 둔화 영향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3년5개월 사이 최저로 내려앉았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오름폭이 둔화된 영향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2.4%)에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두 달째 2%대를 유지하며 안정화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채소와 과일 값은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이는 2021년 3월(+1.9%) 이래 41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3.1%)과 3월(3.1%) 3% 선을 넘어선 이후 4월(2.9%), 5월(2.7%), 6월(2.4%), 7월(2.6%), 8월(2.0%) 등 5개월 연속으로 2%대를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년5개월 만에 최저 상승"이라며 "지난달에 비해 전기·가스·수도도는 올랐지만 유가 상승 폭이 많이 축소됐고 농산물도 많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은 2.4% 상승했다. 물가 기여도는 0.19%p였다. 이 중 농산물은 3.6% 올라 전월(9.0%)에 비해 상승 폭을 줄였다.

석유류 물가는 0.1% 상승해 전월(8.4%)대비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을 받은 데다 1년 전 상승 폭이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겹쳤다. 전체 물가 기여도 또한 0.31%p 하락했다. 반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6.8% 올라 2022년 7월(21.4%) 이후 2년1개월 사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서비스물가는 2.3% 오르며 전월(2.3%)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 중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물가는 각각 1.4%, 3.0% 상승했다. 외식물가는 2.8% 올라 전체 물가 상승

폭을 웃돌았다.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올랐다. 전월대비로는 0.5% 올랐다.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3.2% 오르며 7월(+7.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지난 7월 21.3%를 기록했던 신선과실 상승 폭도 지난달 9.6%로 둔화했다. 다만 배(120.3%), 사과(17.0%)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는 최근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햇과일이 출하되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SK온-현대차, 美서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 1면 '美 전기차 시장 성장...서 계속'

합작공장 가동 전까지는 SK온 단독 미국 공장이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배터리를 공급할 방침이다. SK온은 현재 현대차그룹과 함께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합작공

장을 포함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와 도테네시, 켄터키 지역에 총 127GWh 규모의 공장 3개 등 총 4개의 공장을 152GWh 규모로 건설 중이다.

SK온은 현대차그룹과 함께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합작공장을 포함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와 도테네시, 켄터

키 지역에 총 127GWh 규모의 공장 3개 등 총 4개의 공장을 152GWh 규모로 건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에 맞춰 공장 가동 일정과 생산 지역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현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지현정 기자 hyeon@

## 2030 교사 86% "월급 적어 이직 고민"

20·30대 교사 10명 중 9명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수준에 만족하는 교사는 0.7% 그쳤다. 교사들은 월급을 최소 10% 인상하고, 교직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불만족' 응답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불만족'한다고 답한 교사도 27.9%를 차지해 교사 92.9%가 보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4603명 월급 만족도 설문 총 92.9% 보수에 '불만족' 답변 55.7% "월급 7.2% 이상 인상해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는 나'는 물음에는 86%나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의 경우 2.5%, 6급 이하의 3.3%를 제시한 가운데, 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 4년간 ▲2021년(0.9%) ▲2022년(1.4%) ▲2023년(1.7%) ▲2024년(2.5%) 수준에 머물렀다.

조사에 응한 교사 중 55.7%는 '월급이 7.2%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답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총은 최근 3년간 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실질 보수 인상률'을 '-7.2%'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적어도 10% 이상 인상(31.5%) ▲적어도 5% 이상 인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20·30 교사 10명 중 9명이 7.2%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답변한 셈이다.

공무원(혹은 사학) 연금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93.9%에 달했다. 반면, '퇴직 후 기필 수 있는 정도'라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이를 두고 교총은 "공무원 연금 개편이 이뤄지면서, 젊은 교사일수록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 10개 교육대학 자퇴생이 621명에 달하며 4년 만에 3배가 증가하는 등 '교사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1순위로 꼽았다.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95%가 찬성했다. 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교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총은 교원 보수는 10% 이상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 수당도 기존 2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조건 월급을 올려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합당한 보수 인상과 수당 현실화를 통해 교단의 사기를 올리고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호소"라며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에는 교원 보수를 우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에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모든 교원의 처우와 직접 연관된 교직수당은 무려 24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오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현재 7.8%인 교장·원장 관리업무수당을 4급 일반직공무원 수준인 9%로 인상 ▲교장·원장 직책수행경비 20만원 신설 등을 담은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이현정 기자 ihj@



급변하는 자동차시장

# 동력 떨어지는 전기차... 안전성·상품성·독창성 ‘진검승부’

현대차·기아

EV3, K8 부분변경 모델 선보여  
르노코리아 콜레오스 본격 인도  
KGM 액티언 사전예약 흥행

국내 완성차 업계가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현대차, 기아, 르노코리아, 한국GM, KG모빌리티(KGM) 등 5개사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와 함께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다만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침체에도 현대차·기아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신차를 내놓으며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가 발표한 8월 글로벌 판매량은 61만6814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4%(65만8718대)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



르노코리아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국내 완성차 업계 만행인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33만2963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5.3% 줄어 들었다. 기아는 지난달 국내 4만510대, 해외 21만483대, 특수 645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25만1638대를 판매했다.

현대차·기아를 제외한 국내 중견 3사의 판매량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한국GM은 임단협 갈등으로



KGM 액티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한국GM은 지난달 글로벌 판매량 1만5634대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50.7% 줄어 들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생산 손실이 3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영향으로 대한민국 수출 효과 상품으로 자동차가 주목 받았지만 수출량 감소로 반도체가 다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KGM은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8128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24.9%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내수 판매는 중형 SUV ‘액티언’ 출시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한 3943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출은 39.5% 감소한 4185대를 기록했다. 다만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8451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판매 실적을 거뒀다.

국내 완성차 5개사는 하반기 신차 출시와 인도를 준비하며 판매 반등을 노

리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신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과 EV3, K8부분변경 모델 등을 앞세워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망이다.

르노코리아는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고객 인도에 나선 새로운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E-테크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9월 본격적인 그랑 콜레오스 출고가 시작되면 르노코리아의 실적도 반등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KGM은 신차 액티언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액티언은 신차 사전예약 역대 최고 기록을 수립하며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은 KGM의 신차다. 본격 생산 및 출시 5영업일 만에 780대 판매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급형 모델이 출시되면서 시장 흐름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늦어지는 자차 구매시기... 구독·대여 서비스 택했다

2021년부터 신차 판매율 감소 추세  
면허 취득자 절반 이상 대여시장 진입

차량 판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청년층을 중심으로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신차 판매율은 정체 구간에 접어든 반면 차량 대여 시장은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실제 20~39세 신규 면허 취득자의 60% 이상이 쏘카 신규 회원으로 유입되고, 자차 구매 시기는 늦어지는 추세다.

국내 신차 판매량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7~2019년까지 연간 180만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후 2020년 190만대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부터 170만대까지 떨어졌다. 2023년 기준 누적 자동차 등록대수는 2595만대로 이미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한 꼴이다.

자동차 판매 시장은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단계를 벗어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차 판매량은 감소세이고, 중고차 거래량을 더해도 연간 자동차 거래량은 400만대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신 자동차 대여 시장이 활성화되

고 있다. 신차를 고객에게 3~4년 주기로 대여해주는 장기 렌터카 업계와 쏘카와 같은 구독형 차량 임대업이 대표적이다.

쏘카는 기존 시간 단위 차량대여 서비스에 더해 월 단위 차량구독 서비스인 ‘쏘카플랜’을 추가했다. 쏘카플랜을 이용하면 매달 정해진 요금을 지불하고 소형차량부터 SUV까지 쏘카의 모든 차량을 월 단위로 대여할 수 있다. 쏘카플랜은 청년층에게 주목받고 있다. 취·등록세, 보험, 차량관리비 등을 신경 쓰지 않고 다양한 차량을 운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비용이 저렴

한만큼 자신의 주행 습관에 맞는 차량을 알아보기 위해 임시로 대여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대 4명까지 추가로 차량 운전자를 등록할 수 있어 함께 이용할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차 구매 감소와 대여 서비스 선호 현상으로 쏘카 실적은 상승세다. 쏘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매출은 2024년 2분기 전년 동기과 비교했을 때 12.9% 증가한 825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쏘카플랜은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3.6% 증가한 73억원을 기록했다.

장기 렌터카 서비스도 약 30%의 선

납금과 월 대여료만 지불하면 3~4년 주기로 최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상당한 수요가 있다. 차량 관리뿐만 아니라 취·등록세 등의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장기 렌터카는 법인에서 수요도 상당하다. 기업은 법인차량을 별도로 구매하는 대신 렌터카를 이용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렌터카업체가 차량 관리를 하므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 시장은 2023년 약 8.5조원 규모에서 2026년 10.4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하나증권 안도현 애널리스트는 “시중금리가 내려간다면 렌터카 사업은 확장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 韓-불가리아, 신규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안덕근 장관, 양국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불가리아 정부가 원전 건설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분야를 구체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불가리아 에너지부 블라디미르 말리노프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중동 사태와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폭염과 태풍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빈번하는 상황에서 에너지안보 강화와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안 장관은 “불가리아는 원전(35%)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블라디미르 말리노프(Vladimir Malinov) 불가리아 에너지부 장관과 양국 간 에너지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20%) 등 청정에너지를 발전 분야에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 또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협력

가능성이 높다”며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 에너지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2019년 체결한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전면 개정해 새로 체결한 것이다. 정책교류와 원전, 재생에너지 등 기존 협력 분야에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 저장, 공급망 등을 추가해 협력분야를 확대한게 골자다.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소형모듈원전(SMR), 인력양성 등 협력 분야를 구체화했다.

안 장관은 이날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CFE)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우리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국제사회 확산을 위해 불가리아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 “사전 관리 중요... 자율적 책임의식 가져야”

>> 1면 ‘주소·신용카드 번호...’서 계속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치권이 나섰다. 지난 7월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됐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사항에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해외 호텔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다. 해외는 국내법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자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해외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은 해외

에서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고를 당하면 원칙적으로 해외 당국 법령에 따른 조사를 기다리거나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 국내 개인정보보호위가 해외 국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

법규의 공백도 문제지만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과 같은 처벌 이전에 기업들이 먼저 고객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자율적인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현대 사회는 이제 모든 것이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법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사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고객 정보 관리에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맞춤 상담에, 옵션 다양화... '394조 퇴직연금 시장' 잡아라

## 금융권, '고객 유치' 경쟁 치열

내달 '퇴직연금 갈아타기' 도입  
지난 2분기 말 기준 적립액 394조  
2050년, 1200조 규모 성장 전망

은행, 전용 상담 서비스 등 고도화  
증권사, AI 도입·투자옵션 다변화

오는 10월 '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과 증권사 사이의 전초전이 치열하다. 제도 도입으로 양대 퇴직연금 운용기관인 은행과 증권사 사이에 고객 이동이 불가피해져서다. 각 운용기관은 투자 옵션 다양화, 상담 서비스 확대 등 퇴직연금 경쟁력 확보에 힘쓰는 모습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은 394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반년 만에 약 12조원 늘어난 규모로, 퇴직연금 시장은 오는 2050년에는 전체 적립금 규모가 1200조원에 육박하는 국내 최대 연금 시장으로 성장



다음달 중순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예정돼 있어 은행, 증권업권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 시민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피고 있다. /뉴스시스

할 전망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아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주요한 노후 소득원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의 5년 수익률은 연 2.35%다. 이는 같은 기간 국제 수익률 평균인 2.51%(10년물 기준)는 물론, 물가

상승률 평균인 연 2.7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오는 10월 15일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 현물 이전(퇴직연금 갈아타기)' 제도도 그 일환이다.

앞서 퇴직연금 계좌 이전을 희망할 경우 손익 전망과 관계없이 보유 상품

을 전부 매도해야 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 운용기관과 신규 운용기관이 모두 취급하는 상품을 보유중이라면, 매도 없이도 계좌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신탁계약 상품에 한정되는 만큼 보험사 상품은 이전이 어렵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 옵션을 다양화하고, 퇴직연금 전용 상담 센터 설치 등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퇴직연금의 52.5%(204조원)를 운용하는 은행권은 퇴직연금 특화점포 설치 및 상담 서비스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타 운용기관보다 초저위험 상품(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이 크고 고령자 고객도 많은 만큼, 상담 서비스를 고도화해 점유율을 사수하려는 전략이다.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전문 상담 채널인 '연금 라운지'를 지난달에만 3곳을 추가 설치했고, KB국민은행 또한 '골드라이프 연금센터'를 전국에 10곳 넘게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의 '연금 더드림 라운지'와 우리은행의 '투체어스W'

또한 확장 계획이 나와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포트폴리오 확대, 투자 정보 채널 운영,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등 '투자옵션 다양화'에 나섰다. 가입자가 투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DB형·개인형 IRP 고객의 비중이 은행보다 크고 수익률도 더 높은 만큼, 다양한 투자 옵션을 앞세워 투자 관심도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려는 전략이다.

NH투자증권은 퇴직연금 소개 유튜브 채널 및 투자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삼성증권은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입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다이렉트 IRP'를 판매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퇴직연금에 AI 어드바이저를 도입해 5단계의 위험도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한 퇴직연금 운용기관 관계자는 "은행과 증권사들은 다음 달 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사전 홍보에 힘쓰고 있다"며 "다음 달 현물이전이 개시되면 이같은 경쟁이 더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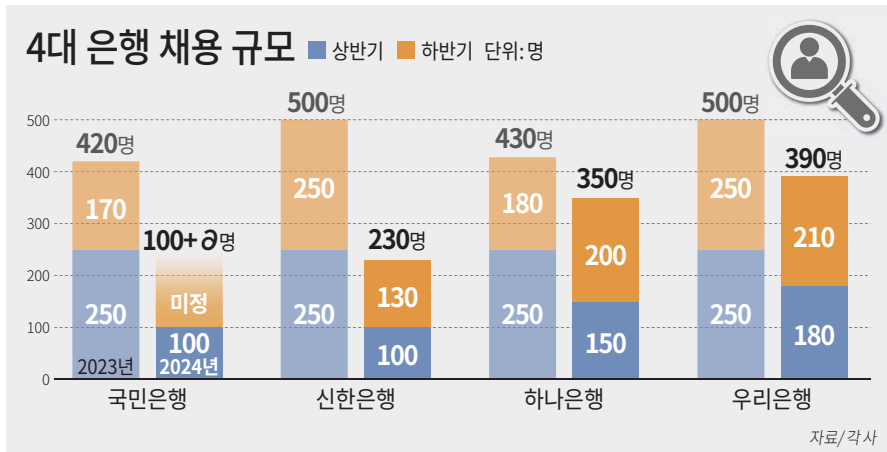
# 은행, 하반기 채용 축소... 모바일 등 비대면 확대에 취업문 좁아져

신한·하나·우리, 공채 540명 선발  
상반기 포함 970명... 전년비 28% ↓  
4대은행, 영업점 수 2019년비 21% ↓

올 하반기 은행권 채용문이 열렸다. 우리은행의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신한·하나·국민은행의 공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PC·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신규 채용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여 취업문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채용공고를 낸 신한·하나·우리 등 3개은행은 올해 하반기 공채에서 540명(잠정)을 뽑을 예정이다. 상반기 공채 규모와 합치면 올해 신규채용 인원은 970명으로 지난해(1430명)보다 28% 줄어든 수준이다.

가장 먼저 채용공고를 낸 우리은행은



하반기 총 210명의 신입행원을 선발한다. 지난해 하반기 250명을 뽑은 것과 비교하면 40명 감소했다. 연간 채용 인원으로 보면 총 39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2% 줄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130명을 채용한다.

연간 채용 인원으로 보면 총 230명으로 1년 전(500명)과 비교해 54% 감소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20명 증가한 200명을 선발한다. 다만 연간 채용 인원으로 보면 총 35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3% 감소한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상반기 100명을 뽑았지만 하반기 채용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지난해보다 채용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채용규모가 감소하는 배경은 코로나19 이후 PC·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영업점(지점+출장소)수가 감소한 영향이 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대은행의 영업점수는 2813곳으로 지난해 1분기(3547곳)와 비교해 21%(734곳) 줄었다.

희망퇴직자 감소도 신규채용 감소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대은행의 지난달 18일 기준 희망퇴직자는 1493명으로 1년전 1996명과 비교해 25% 감소했다. 은행의 희망퇴직자가 줄어든 것은 희망퇴직 조건이 이전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올해부터 희망퇴직자에 한해 지급하던 특별퇴직금을 기존 35~39개월치 급여에서 31개월치로 낮췄다.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퇴직 후 재취업보다는 현수준의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 신규채용 여력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바일로 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은행이 필요한 인력은 정보기술(IT) 경력직으로 바뀌고 있다"며 "일반 행원의 경우 영업점이 줄면서 채용규모를 확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정년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채용규모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앞으로도 속도차이만 있을 뿐 채용 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 1~8월 농식품 수출액 '사상 최대'... 美 22%·유럽 30% ↑

농식품부, 8월 농식품 수출 실적  
12개월 연속 전년동기비 성장세 지속  
라면·과자류·쌀가공식품 상위 품목

올해 1~8월 농식품(K-푸드)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유럽과 미국 시장 실적성장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0%, 20%대에 달하며 국내 K-푸드 수출의 가파른 증가세를 이끌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기준 K-푸드 수출 누적액이 전년동기대비 8.7% 늘어난 64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8월 말 누적 실적 중 역대 최대에 해당한다. 또 12개월 연속으로 전년동기대비 성장세가 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5월 호주에서 개최된 B2B 박람회 '호주 푸드서비스'에서 국산배를 갈아 만든 즙을 선보이고 있다. /aT

속됐다.

특히, 대(對)미 수출이 22.8% 증가해 해당 기간 실적이 10억 달러를 넘어

섰다. 작년 같은 기간 수출은 8억3000만 달러였다. 농식품부는 "주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인기를 얻은 라면·쌀가공식품의 성장률이 높았다"며 "미국에서 K-푸드가 상대적으로 덜 입점된 남부지역 2선 도시(텍사스주 휴스턴, 오스틴)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남부지역에 자리한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및 협의를 통해 K-푸드의 신규 입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럽연합(EU)에 영국을 더한 유럽시장 실적은 이 기간 4억5000만 달러로, 2023년 1~8월(3억5000만 달러)과 비교해 무려 30.5% 급증했다. 아세안은 +5.9%, 중국은 +5.3%를 나타냈다. 반면,

일본은 -7.4%로 올해 다소 부진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은 모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보였다. 그중 라면은 매운 라면의 인기로 힘입어 전년동기에 비해 31.7% 증가한 8억 달러를 수출했다. 과자류 및 음료도 10% 넘게 성장했다. 주요 품목 중 가장 성장률이 높은 품목은 즉석밥·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으로 +41.7%를 기록했다.

배와 포도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0.6% 줄었으나 감소세는 완화되고 있다. 이상 기후로 인해 생산량이 적어 국내 공급량이 부족했던 것이 올해 상반기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만, 하반기 들어 신선농산물 작황이 양호해 수출 물량이 확보 가능한 만큼 연말까지 전년 수준의 수출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소수출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협업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1호 사례인 GS리테일과 봉평은 지난월부터 몽골·베트남 내 GS25 편의점 7개소에서 현지화된 봉평의 파배기를 판매하고 있다. 또 8월 하순 이후 중국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와 서울장수막걸리의 협업모델인 '막사(막걸리+사이다)'에 대해서도 공동관측·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막사와 같은 협업모델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 상품을 해외에 소개할 것"이라며 "주요 수출대상국에서의 수출 영토 확장을 위해 2선 도시 유통매장 및 수입업체를 발굴해 수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하이닉스 르네상스의 원년을 만드는  
**ONE TEAM PLAY**

SK하이닉스 4만여 구성원들은 힘을 합쳐  
글로벌 No.1 메모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 尹, 추석 장바구니 물가 현장점검... “가격 안정되도록 노력”

명절 성수품 사과·배 등 가격 확인  
“비축 물량 풀어 가격 내리고 있어”

농식품 장관에 배추공급 관리 당부  
민생선물세트 판매상황도 점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마트를 방문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동점은 서울·경기북부하나로마트 매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대통령실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번 주는 유통업체가 추석 선물 세트 판매·할인 행사 등 판촉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의 명절 선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해 추석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며 굴비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및 성수품 구매도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맞춰 대통령도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원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카트를 가지고와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우선 윤 대통령은 1층 과일 판매대에 둘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사

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시민들에게 “명절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는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사과 10개를 직접 골라 담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채소 판매대로 이동해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 도매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의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

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명을 들으며 원산지 어디인지, 가격 할인이 어느 정도인지 묻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시민에게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묻은 뒤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농협 관계자에게 농식품부와 농협 등이 저렴한 가격대로 준비한 민생선물세트의 판매 상황을 물었다. 지난달 28일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코너에서 굴비 가격을 살펴봤고, 계란 판매대에서는 명절에 계란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한번 더 송미령 장관에게 주문했다.

한우 코너에서는 한우 포장 팩에 적힌 가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축산물 물가를 점검했다. 근처에서 장을 보던 한 고객이 “대통령님 음식 잘하신다는데, 미역국에 쓸 고기 대신 좀 골라주세요”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기름기

가 약간 있는 고기가 미역국 끓이기에 좋다”면서 명절덕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나주 전통 배 1박스, 철원 오대쌀 한포대, 토종닭 팩, 송편, 인절미, 김 등을 구매하며 주변 고객 한명 한명에게 “명절 잘 쇠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또 시민들의 셀카와 악수 요청에는 수시로 발걸음을 멈추고 흔쾌히 촬영에 응했다.

한편 오늘 윤 대통령의 물가 점검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동근 농협유통 대표이사 등이 동행했으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최소 수행 인력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민생안정대책으로 비축·출하조절 등을 통해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1만2000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심우정 “文 수사 보고 안 받아... 김건희 여사 친오빠와 친분 없어”

(검찰총장 후보자)

법사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 후보자, 文 검찰 수사 정당성 주장  
尹 특활비·김 여사 명품백 대담 회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는 3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겟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심 후보자는 법사위 소속 이성운 민주당 의원



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직접 보고 받지는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라고 규정하며 “국민들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데자뷰로 느낀다”라고도 했다.

이어 심 후보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년이 넘도록 수사하고 부인 김혜경 여사는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다. 반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지조작 사건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 300만원 명품백 수사는 감사의 표시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라며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후보자는 “검찰은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고 여당 의원들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각각 “비리가 불거져 나오면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라고 했던 발언을 언급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심 후보자는 김진우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선 부인했다. 김 대표는 심 후보자와 휘문고등학교 81회(1989년 졸업) 동창으로,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두 사람의 친분이 심 후보의 검찰총장 후보인사에 대한 영향이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 후보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김 대표와의 친분 의혹 제기에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김 대표의 심 후보자 결혼식·자녀 돌잔치 참석과 승진 축하 난 전달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한편 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엔 대담을 회피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직무 정지 중에 11월26일 400만원, 11월30일 2821만원을 사용했다”며 “왜 직무 정지된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특활비를 사용해도 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심 후보자에 “수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내일모레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답변드릴 수 없다”고 일관했다.

/윤도현 기자 yunbgb0611@

# 野, 비토권 포함된 ‘채상병 특검’ 재발의

與, ‘野 셀프 특검’ 평가절하

야5당이 특검 후보 추천 비토권(재추천권)이 포함된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일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며 후보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포함된 것이 핵심이다.

특검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후보 1명씩 추천안을 정부에 넘긴다. 후보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제외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적

절치 않으면 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성준·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특검법 발의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인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라고 밝혔다.

정 원내수석은 “한 대표는 여당 대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 입이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인식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안 재발의를



박성준(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야당 셀프 특검’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日 기시다 총리, 방한 ... 협력 성과 점검

대통령실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 논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1박2일 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퇴임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일·한미일 협력 성과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 이 있을 것이며, 회담에서는 양자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상세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올해 들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은 것은 두 번째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가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방한은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이행 차원에서 성사됐다. 또 기시다 총리는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방한을 적극 희망했다고 한다. /서예진 기자





KLPGA

LADIES ASIAN TOUR SERIES



리디아고 Lydia Ko

이민지 Minjee Lee

패티 타와타나킷 Patty Tavatanakit

박연경 Hyunkyung Park

김효주 Hyo Joo Kim

윤이나 Ina Yoon

이다연 Dayeon Lee



# Hana Financial Group Championship

모두가 하나되는 아시아 No.1 골프축제

2024.9.26(목) - 29(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주 관



방 송



장 소



기획/운영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핑크 |



# BNK금융, 지역 동반성장 올인 특화산업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지방소멸 위기 대응 18.4조 지원  
특별대출·금리감면·채무조정 등  
소상공인 부담완화·유동성 공급  
지역 별 특화산업 육성 지원도

BNK금융이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정면 돌파'에 나선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에 투자해 지역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지역 내 인구·산업 유출로 지역 금융의 경쟁력도 약화하는 만큼, BNK금융의 '지방소멸' 위기 돌파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3월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은 지난달 30일 '지역 동반 성장 선언문'을 발표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8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BNK금융이 실시한 금융지원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 ◆ 소상공인에 18.4조 금융지원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전용 특별대출 공급 ▲기존 대출 금리 감면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BNK금융은 이번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이어 지역 내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에 맞춘 핵심 과제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지역



부산 BNK부산은행 본점.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 본점에 위치해 있다. /BNK금융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약화한 만큼,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해 지역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지역 내 금융기관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다.

앞서 BNK금융은 지난 1월 진행한 비전 발표식을 통해 '지역 기반의 초일류 글로벌 금융그룹 완성'을 그룹의 중장기 추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단기 전략으로는 지주사 역량 강화와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고, 지역 내 금융기관 지위 공고화, 비대면 채널 고도화, 비은행 계열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부울경 지역에 탄탄한 기반을 둔 '글로벌 종합 금융그룹'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반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3월 창립 기념식에서 "BNK금융그룹의 근간은 부울경 지역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지방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새로운 미션과 비전 아래 BNK금융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BNK금융, 지역과 동반성장"

BNK금융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 산업 발굴과 육성에도 힘쓴다.

지난 5월 회장직속기구인 '지역상생발전위원회'를 '지역상생ESG추진위원회'로 재편성해 부울경 지역만의 독자적인 ESG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7월에는 그룹 내에 지역특화산업 금융전문가 양성 과정인 'BNK IB금융과정'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어 지난달에는 그룹사 공동 부동산사업장 정상화 지원, 가덕신공항인프라 지원, 조선업 선수금 환급 보증 등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BNK금융이 앞서 제시한 지역별 특화 산업은 부산의 금융·블록체인, 울산의 에너지, 경남의 항공·우주 등이다.

빈 회장은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통해 BNK금융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주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경제 회복 없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과의) 동반성장은 보다 본질적인 기업 가치 밸류업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성동구 18평대 아파트 10억에도 특공 청약 경쟁률 112대 1 기록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 특공  
65세대 모집에 7301명 접수

서울 성동구에서 18평대의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원에 달했지만 특별공급 청약에 7000명이 넘게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2대 1로 집계됐다. 65세대 모집에 7301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11세대를 모집한 생애최초에 4879명이 신청했고, 신혼부부가 24세대 모집에 2002명이 접수했다.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은 성동구 행당7구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958세대 규모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138세대다.

비규제 지역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분양가는 3.3㎡당 평균 5232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정해졌다.

주택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45㎡가 9억3600만원이며, 59㎡와 65㎡가 각각 14억5400만원, 16억4680만원이다. 여기에 공정률 60% 이상인 후분양이라 전세대 balconi 확장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balconi 확장 비용으로 나와 있지만 시스템에어컨에 김치냉장고와의 류관리기 등 사실상 풀옵션항목이 포

함되어 있어 최대 40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추가된다. 실질적인 분양가는 45㎡ 9억3097만원, 59㎡ 14억9192만원, 65㎡ 16억8643만원이다. 특별공급은 45㎡와 65㎡만 배정됐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근 '서울숲리버뷰자이'가 지난달 59㎡가 15억원선에서 거래된 바 있다.

분양가는 다소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인근에 신축 공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행당동에서 신축으로는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숲리버뷰자이가 지난 2018년 입주한 이후 처음이며, 향후에도 몇 년간 입주물량이 없다. 성동구 전체로 놓고 봐도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과 성수동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2차'가 내년 입주한 이후 2026년에는 공급이 아예 없으며, 2027년에도 용당동에 1개 단지만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은 교통, 교육, 생활인프라 등이 모두 갖춰진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어 실수요층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라체르보 푸르지오 씨밋은 비규제 지역으로 거주유무나 해당주택 등은 없으며, 전매제한만 1년이 적용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충남 아산시 '탕정삼성트라펠리스' 전경. /전지원 기자

# 현대카드, 우량고객 겨냥 프리미엄 승부수

3바다-A 현대카드, 연회비 30만원  
대한항공·제네시스·SSG.COM  
업계 최초 카드 한장에 3개사 혜택

현대카드가 프리미엄카드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강력한 혜택을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건전성 관리와 우량고객 확보라는 두토끼 잡기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카드는 '3바다-A 현대카드'를 내놨다.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로 대한항공과 제네시스, SSG.COM과 협업했다. 업계 최초로 카드 한장에 기업 3곳의 혜택을 모두 담았다. 연회비는 30만원이다.

앞서 현대카드는 롯데백화점과 협업을 통해 PLCC를 공개했다. 미래의 주요 소비층으로 분류되는 MZ세대를 확보하면서 프리미엄 고객층을 넓혀 가겠다는 전략이다. 해당 상품은 실버와 골드 두 가지로 구성했다. 연회비는 각각 3만원과 15만원이다.

지난 5월 출시한 'MX 블랙 에디션 2'의 연회비는 20만원이다. 주요 소비업종 5곳에서 10% 청구할인과 함께 '비자 시그니처' 등급에 적용하는 혜택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프리미엄 카드' 사용하는 소비자 이미지.

을 누릴 수 있다. 전 세계 호텔 900여곳에서 방 업그레이드 및 무료 조식을 제공한다.

현대카드의 프리미엄 전략은 건전성과 시장점유율(MS)을 동시에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높은 연회비를 지출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를 확보하면서 신관잔액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연체 가능성도 낮은 만큼 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에 적합하다.

현대카드는 프리미엄 전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업계 최초로 'VVIP 블랙카드'를 출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연회비는 250만원으로 국내 신용카드 중 가장 높다. '상위 0.05%를 위한 카드'라는 슬로건을 가진 만큼 발급조건 또한 까다롭다.

업계에서도 신용카드 시장이 연회비와 혜택이 비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헤지카드'로 불리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춘 신용카드보다 높은 연회비에 걸맞은 혜택을 탑재한 신용카드가 주류로 떠오른다는 것.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가성비보다 강력한 혜택을 선호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실제로 카드사가 벌어들이는 연회비 수익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의 연회비 수익은 1조3312억원이다. 연간 8.59%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연회비 수익은 ▲2020년 1조686억원 ▲2021년 1조1347억원 ▲2022년 1조2259억원 ▲2023년 1조3313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김정선기자 kimsan119@

# '맹모삼천' 변함없다... 우수 학군지 인기

3040 유아녀가구 내집 선택기준  
학교 등 교육여건이 32.4% 차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불고 있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신축아파트 선호)'에도 학군이 좋은 아파트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에도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과 사교육비 참여율은 오히려 증가, 집과 자녀 모두 '제대로 된 하나'를 일구려는 데 초점이 맞춰진 까닭이다.

3일 부동산R114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입주 5년차 이하의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년 동안 14% 올랐다.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주 수요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상승폭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8월 만 3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가구 중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3042 가구를 상대로 조사한 자료인 '3040 유아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자료에 따르면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

32.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직장거리(17.1%), 주거환경(12.7%)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광역시와 도 지역 거주가구의 경우 각각 34.4%, 35.5%가 자녀 교육 여건을 주택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서울(31.5%), 인천·경기(29%) 등 수도권 외 지역의 수요자들이 자녀교육 여건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울산 남구 '신성미소지움1단지'는 지난 7월 6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2007년 입주해 올해 17년차를 맞은 단지임에도 종전 최고가(5억8500만원)를 경신했다. 이 단지는 '울산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옥동·신정동 학원가가 지근거리에 있다.

충남삼성고와 외고 등 특목고가 인접한 충남 아산시 '탕정삼성트라펠리스' 역시 올해 4월 일반분양으로 44가구를 모집했을 당시 1만7929명이 몰렸다. 2009년 입주한 단지임에도 경쟁률은 무려 407.4대 1을 기록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 가전업계, 전기요금 걱정 된다... 초절전 가전·솔루션 선봬

IoT 기반 에너지 절감효과 극대화  
**삼성**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 서비스  
**LG** '씽큐' 사용자 최적화 솔루션

최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에너지 절감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가전제품이 전력 소모 절감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재무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르면 오는 4분기에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인상해야 한다"면서 "폭염이 지나고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역대급 폭염이 9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부담



삼성전자 모델들이 다양한 AI 가전을 소개하고 있다.

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월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작년 동기(82.7GW)보다 6.1% 증가한 87.8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대 전력수요란 하루 중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의 전력 수요를 의미한다.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 업체들도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가전 통합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SmartThings)를 통해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SmartThings HomeLif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싱스 홈 라이프는 집 안 기기를 스마트싱스에 연동해 가전제품의 전력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령, 여름철 전력 소모가 많은 에어컨이나 냉장고의 사용 패턴을 분석해 최적화된 전력 소비 방식을 제안하고, 자



LG전자 구독 가전 이미지

동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다.

또 'AI절약 모드'를 사용해 설정한 목표 사용량까지 도달하기 전에 절전모드로 자동 전환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정부기관과도 협업해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 배출 저감 실천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력해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의 자동 수요반응(Auto Demand Response) 기능을 활용해 국민들이 탄소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천 캠페인을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LG전자 역시 에너지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LG전지도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LG ThinQ)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LG씽큐는 사용자의 가전제품 사용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절전 모드를 작동시키는 등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한다. 또 가전제품의 전력 사용량과 전월 사용량을 알려주는 '가전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자가 월간 전력 목표 사용량을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누적 사용량 확인할 수 있고, 월말 예상 사용량도 예측해 준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한화오션, 美 해군 군수지원함 정비

월리 쉬라호 거제사업장 입항  
 "K-방산 명성 이어 나갈 것"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한화오션은 2일 MRO사업을 위해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이 합정 정비를 위해 거제사업장에 입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입항 행사는 극동 미해군해상수송사령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거제시 등 양국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입항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호는 해상에서 탄약, 식량, 수리부품, 연료 등을 다른 함정에 보급하는 군수지원함이다. 배수량 4만톤급으로 전장 210m, 전폭 32.2m에 이른다.

월리 쉬라호는 거제사업장에서 약 3개월간 합정 정비 작업을 거친 뒤 미해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인 '월리 쉬라'호가 합정 정비를 위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입항하고 있다.

군 측에 인도될 예정이다.

미국은 최근 운용 중인 해군 전력의 유지보수에 대한 거리상 어려움과 비용 문제 등으로 우방국에 합정 MRO(유지·보수·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한화오션은 합정 기술력과 정비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MSRA(합정

정비협약)을 획득하고 이번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수주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함정의 MRO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적기 인도해 K-방산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삼성전자, 유럽 생활가전 시장 공략 박차

IFA서 유럽형 '비스포크 AI' 콤보 공개

삼성전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유럽 맞춤형 올인원 세탁건조기를 공개하고 현지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오는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가전박람회 'IFA A 2024'에서 유럽 맞춤형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를 선보이며 현지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유럽형 비스포크 AI 콤보를 출시해 공간과 에너지 절감에 특히 민감한 유럽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세탁 용량 18kg, 건조 용량 11kg으로 출시된다.

비스포크 AI 콤보는 세탁물을 옮기지 않고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 번에 가능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보다 상부 수납공간을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유럽은 가옥 구조가 좁아 가전의 공간 활용이 구매에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또 비스포크 AI 콤보는 고효율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 기술이 적용돼 세탁과 건조 작동 부분에서 유럽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세탁 작동에서는 유럽 에너지 소비효율 A등급 대비 20% 더 절감해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췄다.

'AI 맞춤 코스'로 불필요한 물과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스마트싱스 앱에서 'AI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세탁 시 최대 60%, 건조 시 최대 30% 에너지를 추가 절감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월부터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기아, 중형표준차 '캡샤시' 유럽 최초 공개

폴란드 방산전시회 2년 연속 참가

기아가 유럽 방산 시장 공략을 위해 폴란드 방산전시회에서 자사 기술력을 선보인다.

기아는 3일부터 6일까지(현지시간) 폴란드 키엘체 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MSPO 2024(폴란드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 32회째를 맞이한 MSPO 방산전시회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 지난 199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기아는 작년부터 참가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기아는 '중형표준차(KMTV, Kia Medium Tactical

Vehicle) 캡샤시'를 유럽 최초로 공개한다.

기아의 중형표준차는 기존 2½톤, 5톤 군용 표준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차량으로, 전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편의사양이 적용되어 병력과 물자를 보다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m 깊이의 하천을 건널 수 있는 도섭 능력 ▲60% 종경사(전진, 후진을 통해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것) 및 40% 횡경사(옆으로 기울인 채 주행하는 것) 등판 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험난한 주행 환경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한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MSPO 2024에



3일부터 폴란드 키엘체 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MSPO 2024' 기아관에 전시된 소형전술차 베이샤시(왼쪽), 중형표준차 캡샤시 /기아

서 중형표준차 캡샤시, 소형전술차 베이샤시 등 군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이동을 돕는 다양한 특수차량들을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여러 혁신 기술을 적용한 특수차량들을 개발함으로써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가온전선, 지앤피 인수... 품질 경쟁력 강화

지분 100% 현물출자 전량 인수

가온전선이 배전 케이블 및 전선 소재 전문기업인 지앤피(G&P)를 인수하여, 수직계열화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강화한다.

가온전선은 LS전선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지앤피 주식 양수' 안건을 결의하고, LS전선의 지앤피 지분 100%를 현물출자로 전량 인수한다고 3일 밝혔다.

가온전선은 LS전선의 자회사로, 2023년 매출 1조 4986억원을 기록한 국내 3위의 종합전선회사다. 지앤피는 배전(MV, LV) 케이블, 자동차 및 선박용 전선, 그리고 전선 제조에 필요한 컴파운드 등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가온전선은 전선용 소재에서부터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수직계열화를 달성하게 됐다. 이를 통해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까지 생산 과정을 통합 관리하여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앤피의 선박용 전선과 산업용 특수선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하여 다양한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현 가온전선 대표는 "지앤피의 컴파운드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국내 배전 케이블 시장에서 1위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 미국 시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기업 업무 초자동화 시대 열겠다” GPU 중심 AI클라우드 조성 집중

**삼성SDS, 리얼서밋2024 개최**  
클라우드 플랫폼 최신 AI 기술 적용  
퍼스널 에이전트, 맞춤형 업무 지원  
텔·엔비디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기업 업무의 하이퍼오토메이션(HyperAutomation) 시대를 열겠다.”

황성우SDS 사장은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 삼성 연례 정보기술(IT) 행사 ‘리얼서밋2024’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하이퍼오토메이션은 초(超)자동화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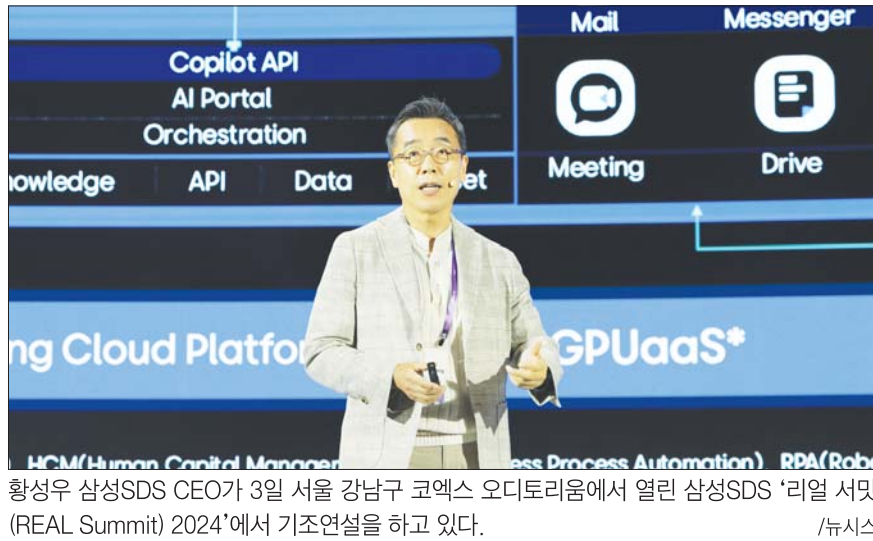
삼성SDS는 지난해 생성형 AI 플랫폼 ‘팩브리크(FabriX)’, 생성형 AI 기반 협업 솔루션 ‘브리티 코파일럿(Brity Copilot)’을 선보였다. 기업 업무를 혁신적으로 자동화하는 팩브리크와 브리티 코파일럿은 현재 100여 개 기업 고객이 도입했고, 15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다.

황 사장은 “생성형 AI를 통해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자연어 명령을 듣고 사람의 의도를 이해해 작동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며 “기업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GPU(그래픽처리장치) 중심 AI(인공지능) 클라우드로 발전시켜 본격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S는 AI 사업 전략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에이전트화 ▲GPU 기반의 AI 클라우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을 선정하고 수행 중이다.

황 사장은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지난 1년 간 코파일럿 다음 단계인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코파일럿의 신기능인 ‘퍼스널 에이전트(Personal Agent)’를 소개했다. 퍼스널 에이전트는 개인별 업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선순위 정리, 다국어 실시간 통역, 음성 기반 업무 처리 등 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다.

퍼스널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 삼성S



DS는 지난해 임직원들의 생성형 AI 적용 아이디어 1만4417건을 발굴했다. 여기서 7개 메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세웠고 4000개 이상 하위 프로세스에 생성형 AI를 적용했다. 현재 생성형 AI 업무로 업무의 13% 가량이 자동화했으며 내년 중 25%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삼성클라우드플랫폼(SCP)은 ‘GPU 중심 AI 클라우드’로 개발할 예정이다. AIOS(LLM Agent Operating System), LUI(Language User Interface)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하이퍼오토메이션 혁신의 여정(Journey)을 이끌 계획이다. AIOS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내장해 자연어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OS이며 LUI는 언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기조연설에는 텔테크놀로지스 마이클 텔 회장, 엔비디아 제리 첸 제조·산업 부문 글로벌 비즈니스 개발 총괄, 마이크로소프트 마크 소우자 아시아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CTO), 워크데이 조 윌슨 글로벌 CTO 등 삼성SDS와 협력하는 글로벌 업체들의 경영진도 참여했다.

또 삼성생명 흥선기 디지털 혁신실장(부사장)과 파라다이스그룹 정봉화 총괄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상무)

가 삼성SDS와 함께 생성형 AI를 이용해 어떻게 업무를 혁신했는지 발표했다. 마이클 텔 텔 테크놀로지스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삼성SDS와 텔 테크놀로지스가 수십 년 동안 파트너로서 함께 해 온 만큼 앞으로도 삼성SDS와 혁신의 여정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제리 첸 엔비디아 총괄은 GPU 중심의 AI 클라우드를 위해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과 엔비디아 간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크 소우자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은 삼성SDS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협력으로 삼성SDS는 팩브리크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 기반으로도 제공할 글로벌 고객들도 팩브리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에 이어 27개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클라우드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등 삼성SDS의 핵심 역량과 적용 사례가 공유됐다. 특히 ▲베트남 CMC그룹 브리티 코파일럿 도입 ▲웅진 렌탈 서비스 팩브리크 적용 ▲대상웰라이프 브리티 오토메이션 적용 등 생성형 AI 적용 사례 ▲LIG 넥스원의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도입 사례 등이 소개됐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LGU+ “초개인화된 AIPTV 시장 선도”

자막 생성부터 음성 챗봇까지 지원

LG유플러스가 초 개인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AIPTV(AI + IPTV)’ 시대를 연다. 인터넷TV(IPTV) 서비스에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익시(ixi) 기반의 AI 에이전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찬승 LG유플러스 휴니버스 그룹장(상무)은 3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보다 나를 잘 아는 딱 맞는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초개인화 AIPTV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간담회에서 콘텐츠 탐색부터 시청, 이후의 소통까지 시청 경험 여정의 전 과정에 AI 기술을 적용해 차별적 고객가치를 만드는 U+tv의 신규 기능을 소개했다.

LG유플러스는 먼저 IPTV 특화 AI 에이전트인 ‘미디어 에이전트’를 IPTV에 적용해 초개인화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AIPTV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 에이전트는 고객의 모든 TV 시청 여정에 적용되는 ‘지능형 시청 도우미’이다. ▲초개인화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AI 큐레이션’ ▲자막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글자 겹침이 있



LG유플러스는 3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PTV 서비스 ‘U+tv’에 익시(ixi) 기반의 AI 미디어 에이전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면 자동으로 위치를 이동하는 ‘AI자막’ ▲AI기반 24시간 고객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익시 음성챗봇’ 등 3가지 신규 AI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AI 큐레이션은 고객별 취향에 맞는 콘텐츠와 고객별 시청 패턴에 적합한 합리적인 월 정액 상품을 맞춤형으로 제안해주는 기능이다. 시청 이력을 기반으로 ‘추천’ 색선에서만 콘텐츠를 제안했던 기존 개인화 기능과 달리 AI 큐레이션은 고객이 콘텐츠를 검색한 해도 즉시 유사 콘텐츠를 제안하는 등 고객 행동에 실시간 반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방송도 한글 자막을 켜고 시청하는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AI자막’ 기능도 탑재했다. /구남영 기자 koongia\_tea@

## 800Gbps급 대용량 유선망 최초 도입

SKT-SKB 상용망 시험개통 완료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국내 최초로 800Gbps(초당 기가비트)급 대용량 유선망을 차세대 백본망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선제적 준비에 나선다. SK텔레콤(SKT)과 SK브로드밴드는 최근 800Gbps급 유선망을 서울-부산 구간 상용망에서 시험 개통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으로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SKT는 추가로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인천 사옥에 1.2Tbps 초대용량 유선망 개통 시험도 마쳤다.

양사는 그동안 빠르게 늘어나는 데이터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대용량 유선망 도입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성과를 토대로 800Gbps급 전국망 체계를 확보, 고도화된 백본망 전송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SKT와 SK브로드밴드 고객들이 국내 전 지



SK텔레콤 직원들이 백본망에 도입된 800Gbps급 유선망을 정비하고 있다. /SK텔레콤

역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끊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한층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대용량 유선망 도입에는 차세대 광전송 기술이 활용됐다. SKT는 800Gbps 대용량의 초장거리 1200km 전송 시험을 선제적으로 마친 데 이어, 1.2Tbps 초대용량을 중장거리 전송 시험을 상용망에 시범 도입하여, 광전송 장비의 핵심 기능인 ‘장거리 전송’과 ‘대용량 전송’을 고도화하는 데 성공했다. /구남영 기자

## 네이버웹툰, 지난해 경제 파급효과 4.3조

韓 수출 2.4조, 전체 55.3% 차지  
2019~2022년 해외 연평균 122% 성장

네이버웹툰이 지난해 한국 경제에 약 4조352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한국 웹툰 수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4062억 원으로 전체 55.3%를 차지했다.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진출 10주년을 맞아 ‘2023년 한국 창작 생태계 기여 효과’ 연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연구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 이재현 충남대 교수 공동 연구팀이 수행한 결과물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네이버웹툰이 수출한 한국 웹툰의 해외 유료 콘텐츠 매출 연평균 성장률(CAGR)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22%를 기록했다. 해당 작품들은 전체 조회수의 48.3%가

해외에서 발생했다.

연구팀은 플랫폼과 콘텐츠의 글로벌 동반 진출이 수출을 더욱 촉진하는 것은 물론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플랫폼이 전 세계 독자와 콘텐츠를 활발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에 따른 한국 창작자 효용도 분석했다. 해외 플랫폼이 확장할수록 국내에 더 많은 아마추어 작가가 자사 플랫폼으로 유입되고, 이는 정식 연재 작품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나타냈다.

한국 웹툰을 여러 언어로 수출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 순위의 하락 폭이 줄어 작품 수명을 늘리는 효과도 발생했다. 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의 삼 작가는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연재가

가능하고 번역과 해외 홍보, 프로모션도 지원받는다”며 “제 작품은 국내 수익의 1/3 정도가 해외에서 추가로 나오는데 매출이 안정적인 덕분에 인건비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웹툰작가들도 네이버웹툰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더 많은 성장 기회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네이버웹툰 정식 연재 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대부분(93%)의 작가들은 “네이버웹툰이 해외 플랫폼 구축과 번역, 마케팅 등 웹툰의 해외 진출 전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81%는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진출이 웹툰의 저변 확대와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견인했다”고 답했다.

/이혜민 기자 hyem@

## SKT “AI가 맞춤형 상품 추천해 드려요”

구독 플랫폼 ‘T 우주’ 개편

SK텔레콤은 자사 구독 마케팅 플랫폼 ‘T 우주’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구독 마켓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AI 기반 구독 마켓’은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담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뜻한다.

SKT는 이번 개편에서 AI 기술을 도입하고 제휴처 확대 등을 진행함으

로써 고객들에게 한층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T 우주’에는 고객에게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AI 기반 고객 행동 예측 모델’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개인화된 상품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며, 구독 일시중지 및 다양한 구독 주기를 선택할 수 있는 편의 기능도 추가됐다.

/구남영 기자





# 명절선물세트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당신 곁에. 마음을 보내주세요.



02-2273-4664

축산물 도소매 직거래 쇼핑몰

www.meatstation.co.kr



# ‘바닥 근접’ 中 탈출 러시… ‘AI 돌풍’ 미국에 투자금 몰려

中 증시 보관액, 올해 최고치比 14% ↓  
규제 강화·경기 악화 등에 하락세  
美, 엔비디아 필두 보관금액 17% ↑



/유투이미지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투자한 자금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증시는 AI(인공지능) 관련 투자 돌풍에 힘입어 투자금이 몰리는 추세다.

3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8월 중국 증시 보관금액은 8억5100만 달러(약 1조1409억원)로, 올해 중 가장 많은 보관금액이 있었던 3월의 9억8400만 달러(약 1조3193억원)보다 약 14% 감소했다.

올해 2월 9억7500만 달러(약 1조3074억원)에 달했던 중국 증시 보관금액은 3월 잠시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후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매도세만 봐도 지난해 12월에 이어 9개월 연속 순매도세를 유지해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 증시 이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 증시가 좀처럼 장기 하락

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증시 상황의 지표가 되는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300종목으로 구성된 ‘CSI300 지수’는 3일 3274.22를 기록하며 전일보다 9.21 오

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52주 최고(지난해 9월 4일)를 기록한 3854.26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5월 3700선에 닿으며 반짝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CSI300 지수는 이내 내리막을 걸었다.

중국 증시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를 비롯해 경기 악화, 중국 본토 부동산 경기 침체, 미국과의 갈등 고조 등이 꼽히고 있다.

반면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의 8월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872억2667만 달러(약 116조9710억)에 달했다. 중국 증시가 올해 최고 금액을 보유했던 3월,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748억2887만 달러(약 100조3455억원)로 중국 증시 보관금액이 줄어들 때 미국 주식은 약 17%가량 증가했다.

증권가에서는 중국 증시의 순유출이 이어질 수 있지만 과도한 우려 보다 상황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에 대해 “최근 경기와 투자자 수급이 좋지 않고, 외국인의 주식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바닥에 근접했지만 낮은 구간에서의 횡보가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중국의 통화 정책 집행 여력이 강화할 전망이다”이라며 “제약·바이오, 일부 테크 기업, 방산 등 성장 업종의 주가 반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경기 반등 폭이 제한적이나 현재의 비관론도 일부 과도하다”며 “하반기 중국 관련 원자재 수요 부진을 경계하되, 중국 증시 부양책과 금리 인하 추세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엔비디아’ 향한 엇갈린 투심… 순매수·매도 전부 우위

### 해외주식 Click

엔비디아 추종 ETF·개별종목 매수 분기 지날수록 매출총이익률 감소 우려 AI 칩 ‘블랙웰’ 출시 등에 평가 갈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이미지).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투심을 유지하면서 반도체·엔비디아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대거 순매수했다. 다만 순매수·매도 우위를 전부 엔비디아 관련 종목이 차지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투심이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8월 27~9월 2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그라나이트셰어즈 2X 롱 엔비디아 데일리’ ETF로 약 8605만 달러(1154억원) 사들였다. 해당 상장지수펀드(ETF)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2배 추종하는 상품으로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 상승장에 베팅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엔비디아 개별 종목은 5400만 달러(724억원)가량 사

들이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선호를 이어갔다. 지난주 실적 발표라는 이슈가 있기도 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서학개미들의 순매수세는 지속됐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저가 매수를 노렸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장 마감 이후 올해 2분기 매출이 300억 400만 달러(40조2593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122% 증가한 동시에 시장예상치를 웃돌면서

‘깜짝 실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만큼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지난달 19일 130.00까지 오르며 상승 랠리를 보였지만 이를 만에 8.34%가 떨어진 것이다.

안소는 KB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는 실적 결과와 가이던스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서프라이즈 강도는 지난 분기에 이어 약화됐다”며 “컨센서스 평균값과 실제값을 비교한 서프라이즈 퍼센티지뿐 아니라 컨센서스 분포를 고려한 표준화 서프라이즈(SUE)도 4개 분기 연속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투자 매력 측면에서 실적 자체의 성과보다 실적 성장세가 주목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새로운 인공지능(AI) 칩인 ‘블랙웰’의 출시 등 호재가 남은 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일각에서는 분기가 지날수록 매출총이익률이 감소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양산됨에 따

라 수율이 개선되고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익률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전작인 호퍼 기반의 H100, H200의 수요가 견조함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콜레트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블랙웰 생산량은 4분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6년 회계연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기존 호퍼칩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가운데 블랙웰 수익도 더해지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엔비디아의 향방이 갈리는 시점인 만큼 시장에도 혼란이 반영됐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 관련 주식을 가장 많이 사들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엔비디아를 6억3947만 달러(8580억원) 매도하면서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더불어 서학개미들은 반도체 강세에도 레버리지 투자에 대응하면서 공격적인 투심을 보였다. 동일 기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볼 3X’ ETF를 6054만 달러(812억원) 순매수하면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 코스콤

## 윤창현 전 국회의원 신임 사장으로 선임



코스콤은 3일 서울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윤창현 전 국회의원(사진)을 코스콤제20대 대표이사·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신임 사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금융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업무를 시작한 윤 신임 사장은 1995년부터 명지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이어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근무한 뒤 지난 2012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이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후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기간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토건증권발행(STO)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금융, 증권 분야의 굵직한 이슈를 이끌었다.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윤 신임 사장은 “앞으로 자본시장 내에서 쟁길 현안이 많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며 “STO 법제화가 다시 논의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둘 것”이라고 전했다.

토건증권 법제화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다만 다음주 중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건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하면서 22대 국회에서 토건증권 법제화를 재점화했다. 윤 신임 사장이 자동 폐기됐던 STO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STO 법제화에 힘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하은 기자

## NH투자증권, ‘나무팜’으로 해외투자 접근성 ↑ 삼성증권, 법인 주식보상제도 전용 시스템 열어

### ‘농장 키우기’ 콘셉트 도입

NH투자증권 나무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나무팜’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나무팜’은 주식을 마치 농작물을 키우듯이 관리하며 성장시키는 투자농장 콘셉트로, 매일의 투자 루틴을 형성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위한 플랫폼이다.

‘나무팜’은 해외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진입 장벽을 느끼는 투자자들을 위해 ‘농장 키우기’ 콘셉트를 도입했다.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나무팜 핵심 아이디어는 농장 관리를 하듯 좋은 종목을 선별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나무팜’을 통해 미국 주식을 선택한 후 원하는 금액만큼 매수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자동으로 매수할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단돈 천원부터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 안정적인 배당주, 그리고 분산투자의 장점이 있는 ETF 등 다양한 종목으로 자신의 농장을 구성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워크플레이스WM서비스’ 제공

삼성증권이 ‘워크플레이스WM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시스템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증권의 ‘워크플레이스WM서비스’는 기업 고객들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재무 복지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로, 법인의 임직원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설계를 비롯해 세무 프로세스 지원, 임직원 대상 재무 상담 등 폭넓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2011년 국내증권사 최초로 외국계 법인의 주식보상 관리를 시작으로 14년간 임직원 3만명의 2조 이

상 국내외 주식보상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초대형 IT 기업 등 국내외 다수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부터 실제 주식 매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연규 삼성증권 SNI·법인전략담당 상무는 “글로벌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식보상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점차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며 “삼성증권은 10년 넘게 쌓아온 임직원 주식보상 서비스 노하우와 축적된 세무·자산관리 서비스 역량을 갖추고 있어 본사 주도 컨설팅을 통해 법인과 임직원에게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 “매트리스 반영구 시대… ESG와 직결, 100년 이롭게할 것”

## 뷰티레스트 런칭 100주년 간담회

안정호 시몬스 대표  
“신제품에 ‘바나뭉 포켓스프링’ 적용  
탄성·내구성 뛰어나 극한상황 견디  
사용주기 늘려 폐기물 줄이는 효과”

잘 늘어나고 잘 퍼지면서도 단단하고  
부러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금속, 강철  
보다 강하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바나뭉은 강  
철·합금 강도와 온도 안정성을 증가시  
켜 탄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온·고  
압 등 극한의 상황을 견디 제트엔진 등  
항공 엔지니어링 기술에 특수 소재로  
쓰인다.

침대전문회사로 지난해 업계 1위를  
한 시몬스가 앞으로 생산하는 모든 매  
트리스에 바나뭉 소재를 활용한 포켓스  
프링을 적용,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7월1일 이후 고객들  
이 구입한 모든 시몬스 매트리스에는  
바나뭉 포켓스프링을 사용했다.

‘바나뭉 포켓스프링’은 기존의 경강  
선 포켓스프링보다 5배 정도 강하다는



안정호 시몬스 대표가 3일 경기 이천 시몬스 팩토리룸에서 신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시몬스

게 시몬스측 설명이다.

바나뭉 소재를 통해 내구성 뿐만 아  
니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까지 ‘두 마  
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안정호 대표는 시몬스 침대의 심장부  
인 경기 이천 시몬스 팩토리룸에서 3일  
‘뷰티레스트(Beautyrest) 런칭 100주  
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바나뭉 포  
켓스프링을 적용한 대표 브랜드 뷰티레  
스트 신제품을 소개했다.

뷰티레스트는 내년이면 출시한지 꼭  
100년이 된다.

안 대표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25년, 시몬스는 ‘뷰티레스트 컬  
렉션’을 출시하고 세계 최초로 포켓스  
프링 제조기계 특허를 취득했다”며 “포  
켓스프링 대량 생산으로 침대의 보급화  
를 실현해 인류의 잠자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나뭉 포켓스프링은 하  
루종일 20만 번 이상의 스프링 내구성  
테스트를 1000만 번 이상 진행해도 끊  
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존 제품보다 내  
구성이 월등히 향상돼 사실상 스프링의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며 “시몬  
스는 100% 자체 생산을 통해 바나뭉 포  
켓스프링의 대중화를 선도하며 반영구  
적 사용이 가능한 매트리스 시대를 이  
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설명하는 동안 한쪽에선  
바나뭉 소재를 적용한 스프링의 내구성  
실험이 끊임없이 반복됐다.

포켓스프링은 시몬스의 상징이다.

침대 역사에서 포켓스프링의 대중화  
를 선도한 것이 바로 시몬스이기 때문  
이다.

안 대표는 “시몬스의 포켓스프링은  
상단부와 하단부 직경이 좁고, 중간 부  
분이 넓은 항아리 모양으로, 스프링이  
마찰하는 면적이 없어 불필요한 소음을  
없애고 내구성 또한 강하다”며 “여기에  
압축률은 30%에 달하고, 이탈리아 이  
탈펠트로사의 고밀도·고인장력 특수부  
직포로 포켓스프링을 감싸 스프링의 손  
상을 막아준다”고 전했다.

게다가 스프링은 최적의 탄력 효율을  
구현하기 위해 7회전으로 이뤄져있고,  
포켓커버와 간섭현상을 막기 위해 안쪽  
으로 접히도록 끝을 마무리했다.

바나뭉 포켓스프링을 활용한 반영구

적인 매트리스는 ESG와도 직결된다.

안 대표는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드  
는 것은 당연하다. 소비자들도 제품을  
오래 쓰면 좋은 것 아니냐. 오래 쓰면 폐  
기물을 줄이는 등 여러가지로 좋다는  
판단에 바나뭉을 제품에 적용하게 됐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내  
일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이라  
는 말이 있다”며 “100여 년 전 시몬스의  
품질 혁신으로 전 세계인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선사했듯, 이제는 바나뭉 포  
켓스프링이라는 ‘세상에 없던 기술’로  
또 다른 100년을 이롭게 하겠다”고 당찬  
포부도 밝혔다.

한편 안 대표는 제품 가격 인상에 대  
해 “코로나 팬데믹 2년간 가격을 동결했  
다. 이후 원부자재와 인건비, 물류비가  
모두 올랐다. 올해 초 제품 가격을 인상  
할 수밖에 없었다. (바나뭉 포켓스프링  
을 적용한) 신제품은 3년을 준비했다.  
내장재와 소재도 완전히 새롭게 바꿨  
다.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인상  
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쿠광, 3조 투입… 인구감소 지방도시에 1만명 직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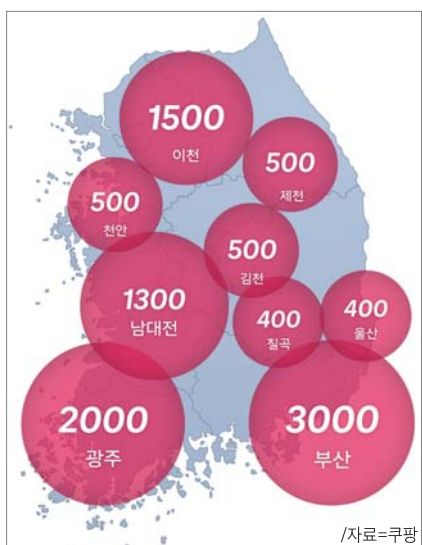
내후년 까지 물류인프라에 3조  
내년 9개 지역에 물류시설 건립  
직고용 96% 비서울 지역서 근무

쿠광이 20대 청년을 포함해 인구가 줄  
어드는 지방에 물류 인프라 투자를 대거  
늘린다. 추가 물류 인프라 투자를 바탕  
으로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는 지역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20대 청년 등 최대  
1만여명을 신규 직고용할 방침이다.

쿠광은 2026년까지 전국 물류 인프  
라에 3조원 이상을 투자키로 한 계획에  
따라 내년 초까지 9개 지역에 풀필먼트  
센터(FC)를 비롯한 물류시설을 건립,  
운영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예상 직고용 인원만 1만명이 넘는  
다. 쿠광은 지난 3월 2026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해 물류 인프라와 설비에  
투자하고, 5000만인구를 대상으로 로

(지역별 예상 직고용 인원) (단위: 명)



켓배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가 물류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지역 곳곳에 대규모 고용인원이 창출  
될 전망이다.

먼저 다음달까지 대전 동구 남대전  
지역과 광주광역시 FC 2곳을 준공해  
운영에 들어간다. 신규 준공 FC 2곳의  
예상 직고용 인력은 3300여명 이상  
이다. 지난달 본격 가동한 충남 천안 FC  
는 500명 채용 예정이다.

각각 500명, 400명 채용 목표인 경북  
김천 FC와 울산 서브허브(배송캠프로  
상품을 보내는 물류시설)는 오는 10월  
착공한다. 경북 철곡(400명) 서브허브  
는 연내 운영을 시작하고, 충북 제천  
(500명) FC는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부산 강서구 FC(3000명)와 경기 이  
천 FC(1500명)는 올 2분기 착공했으며  
순조롭게 건설중인 상태다.

쿠광의 물류 투자 계획이 실현되면  
비서울 지역의 배송·물류 관련 직고용  
인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쿠광의 물류·배송 관련

직고용 인력의 96%(약 5만5600명)가  
비서울 지역에서 일한다.

물류 인프라 투자로 창출되는 물류·  
배송 관련 직고용 인력은 쿠광이 지역  
에서 만드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앞으로 신규 물류 인프라 투자로 인  
한 지역 직고용 인력이 1만여명 늘어날  
경우, 비서울 지역 고용인원은 6만5000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개 추가 투자지역 가운데 대전  
동구·광주 광산구, 경북 김천 어모면·  
철곡군과 울산 울주군·충북 제천은 저  
출산 여파 등으로 최근 인구가 줄거나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쿠광의 지역 물류망 투자로 서울이  
나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다시 지방  
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며 여성 고  
용도 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쥬두산 ‘KPCA Show 2024’ 참가 스마트 디바이스 등 전시

쥬두산이 스마트 디바이스, 반도체  
기판, 통신 등의 주력 제품과 전자기기  
의 핵심 소재 기술력을 선보인다.

쥬두산은 9월 4~6일 인천시 송도컨  
벤시아에서 열리는 ‘KPCA Show  
2024(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  
전)’에 참가해 반도체 패키지, 인공지능(AI) 서버, AI 가속기, 자동차 자율  
주행용 모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  
엔드(High-end) 동박적층판(CCL)을  
소개한다고 3일 밝혔다.

‘KPCA Show’는 한국PCB&반도  
체패키징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  
대의 전자회로기판(PCB) 및 반도체패  
키징 관련 전문 전시회다. PCB와 반도  
체패키징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선진기  
술을 소개하고 기술 이전의 기회, 다양  
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술 선진  
화를 앞당기고 국산 장비의 고급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쥬두산  
을 비롯해 삼성전기, LG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등 140여개사가 참가한다.

쥬두산은 스마트 디바이스(스마트  
폰, 스마트워치, 자동차 자율주행 모듈  
등) 반도체 기판(메모리, 비메모리) 통  
신(네트워크 보드, AI 서버, AI 가속기  
등) 등 3가지 테마로 이번 전시회를 준  
비했다. 특히 스마트 디바이스와 관련  
해 CCL 외에도 레진코팅동박(RCC),  
연성동박적층판(FCCL) 등 다양한 종  
류의 제품군을 선보인다. CCL은 거의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PCB의 원  
재료가 되는 핵심소재다.

쥬두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주력 제품을  
소개하기로 했다”면서 “신소재 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대동, AI전문가 영입… 통합 R&D센터 오픈 “온누리상품권, 학원·노래방서도 쓰세요”

대동에이아이랩 대표에 최준기 박사

대동이 인공지능(AI)과 로봇 사업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전문가를  
영입하고 통합 R&D센터를 열었다.

대동은 KT AI사업본부장 출신인 최  
준기 박사(사진)를 AI 로봇 S/W전문  
회사 대동에이아이랩 대표로 선임하고  
관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신임 최준기 대표는 카이스트  
(KAIST) 전산학 박사 출신으로,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를 거쳐 KT에  
서 18년간 AI 분야 요직을 맡았다.

KT AI/BigData사업본부에서 AI



스피커 ‘기가지니’ 서  
비스를 기획·운영해  
300만 가입자를 확보  
했다. 이어 AI사업본  
부장을 맡아 생성형  
AI ‘민음’ 사업과 KT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총괄했다. 또 A  
ICC(인공지능센터) 사업을 담당하  
며 B2B 영역에서 연 평균 두 자리수 이  
상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왔다.

최 대표는 “대동그룹의 스마트 농  
업 경쟁력에 AI와 로봇을 더해 글로  
벌 리더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가맹 제한업종 40종→28종 줄여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  
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난다.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에서도 온  
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

9월 한 달간 카드형 등 디지털 온  
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올려 더욱 저렴하  
게 판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점  
가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  
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

용이 담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  
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  
한업종은 기존 40종에서 12종이 풀려  
28종으로 줄어들게 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  
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  
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  
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  
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을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온실가스 배출권 규제 강화... 대기업 부당이득 방지 '총력'

환경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할당량 15% 이하로 줄여야 할당 취소  
자산운용사·은행·보험사 시장 참여

정부가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배출권 시장 참여자  
의 범위를 확대해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  
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우선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  
적됐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  
한다.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

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  
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별도의 노  
력 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  
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  
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  
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  
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  
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은 배출권을 판  
매해 일종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의 할당대상업  
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  
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

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  
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  
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  
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  
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  
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  
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  
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  
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기후변화 등 대처해 재배 곡물 다변화 시급”

홍문표 aT 사장, 기자간담회

김치·라면 등 세계 제패엔 역부족  
“국민들에 먹거리 제공이 aT 역할”

지난달 취임한 홍문표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aT) 사장이 3일 식량을 무  
기에 비유했다. 그는 식량이 없으면 안  
보도 없다며, 기후 변화 등에 대처할 재  
배 곡물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해  
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김밥과 관련해서  
는 본질이 서구의 햄버거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이어, 돌풍이 머지않아  
식물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홍 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기자간담회  
를 갖고 “국민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  
고 농어민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이 유  
통공사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등 의정 경험이 풍부  
한 홍 사장은 ‘식량이 곧 무기’라는 견  
해를 국회에서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고 했다. 그는 “처음엔 남북관계 때문에  
(동료 의원들이) 거주장스러운 단어로  
봤다”면서도 “이제는 여럿이 동의한다.  
쌀만 주로 생산하는 나라에 기후변화  
및 재난, 전쟁 등이 닥쳤을 때 대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5곡  
으로 가야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3일 오후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인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T

만 쌀을 식량으로 가지고 있는 반면, 세  
계는 밀, 콩 옥수수 등 5곡을 식량개념  
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식품 수출에 aT가 사명감  
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홍 사장은 김치  
와 라면의 인기를 언급하면서도 유명세  
가 예상보다 빨리 식을 수 있다고 했다.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식품을 상당히  
선호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를 커버하  
기는 어렵다”라는 게 그의 견해다.

좋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

김밥이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보  
다 조금 더 좋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새로운 것을 만드는 대한민국, 또 농업  
농촌 자원을 기르고 보호하고 이들을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강한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미래농업인 스마트팜에 대한 의견  
도 밝혔다. 겨울에도 수박, 오이가 생  
산되는 사계절 스마트팜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그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국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올해는  
몇 동, 몇 개 이렇게 5년만 하면 대한민  
국도 80%는 스마트팜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준비가 안 된 곳에 로비하면 정책자  
금만 나갈 뿐이라고도 했다. 그는 “곰  
곰하게, 현지출장도 나가보고, 스마트  
팜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구조적 문  
제까지 아울러서 1년에 3개까지만 해  
보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사시사철  
농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사장은 취임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  
(충남 홍성·예산)으로 제21대 국회의  
원을 지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역임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韓 반부패 정책, 중남미 4개국 공무원에 전수

권익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청렴포털 등 반부패 정책과 제도가 중  
남미 스페인어권 국가 공무원들에게 전  
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3일~11일까지 9일간 '다국가 반부패 역  
량강화 연수' 스페인어 과정을 첫 운영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콜롬비아 대통령실,  
페루 총리실, 볼리비아 법무투명성부,  
파라과이 감사원 등 4개국 반부패 관계  
기관 공무원 총 15명이 참여한다.

특히 장관급인 로베르토 이다라가 콜  
롬비아 투명성 수석 등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고, 파울 페르난도 두클로스 파  
로디 주한 페루 대사가 연수 환송식에  
참석하는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에 높

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대상을 수상한 공공기관 중  
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해 부패영향평  
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반부  
패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또 청렴포털, 온라인 공직자 재산신  
고 시스템, 나라장터 등 부패 예방에 효  
과적인 한국의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을 소개하고, 개도국들의 부패 취약분  
야인 공공계약과 조달 분야에서 부패  
를 적발하는 감사기법도 공유할 예정  
이다.

권익위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매년 세계 각  
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과정을 운영 중이다. 그간 70개국 383명  
의 외국 공직자들이 참여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KIAT, 우즈베크 희소금속 공급망 확보 총력

국가희소금속센터서 현장 간담회  
핵심 원천기술 과제 발굴 등 수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우즈  
베크 희소금속 공급망 기반 구축사업을  
총력 지원한다.

KIAT는 지난 2일 오후 인천 송도 소  
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희소금속  
센터를 방문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  
혔다.

국가희소금속센터는 현재 산업부 산  
업통상개발지원(산업ODA) 사업의 지  
원을 받아 우즈베키스탄 치르키키시에  
있는 '한-우즈베크희소금속센터' 구축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는 한국생  
산기술연구원과 우즈베크 국영기업 알팔  
릭 광업공사 주관으로 양국 정부 지원  
하에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열었다.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는 올해 연  
말 시험생산동 가동을 앞두고 있어 향  
후 우즈베크의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상

용화 연구개발과 양산에 필요한 실질적  
기반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희소금속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  
단산업 발달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급 안정에 국가 전략적 노력이  
필요한 분야다. 특히, 광물 대부분이 일  
부 국가에 편중돼 공급망 다변화가 시  
급하다.

한-우즈베크 희소금속센터는 현지 매  
장량이 풍부한 텅스텐, 몰리브덴과 같  
은 희소금속을 대상으로 원료의 순도를  
높이는 제련 기술 고도화 연구에 먼저  
착수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반도체, 전자부  
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희소  
금속 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KIAT는 향후 한-우즈베크 희소금속  
센터에서 고품질 희소금속 소재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지도, 전문가 교  
류, 인력 양성 등을 추진, 희소금속 신  
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국무회의장에 깜짝 등장한 '농수산물 추석 선물세트'

송미령·강도형 장관 선물세트 홍보  
베이글·한우·조기·전복 등으로 구성  
추석명절 맞아 최대 50% 할인 판매

국무회의장에 국내산 쌀로 만든 베이  
글 등 '추석 민생 선물세트'가 등장했  
다. 시중가 대비 최대 절반 수준인 농산  
물과 수산물 선물세트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  
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  
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수  
산식품을 활용한 추석 민생 선물세트  
와 농수산물 가공식품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부담 완화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한다. 두 장관은 제주용 제품과 소비 촉  
진이 필요한 품목으로 구성된 이 선물  
세트를 올해 추석에 가까운 분들과 마  
음을 나누는 데 활용해 줄 것을 국무위  
원들에게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을 이용한 베이글·과자·식물성 짬뽕료  
등 쌀 가공식품을, 해수부는 전복 및 해  
조류 등 수산물을 활용한 어묵·양갱 등  
을 선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추석을 맞  
아 민생 선물세트를 통해 따뜻한 마음  
을 전하고, 농어촌의 어려움을 이해하

며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가 최고회의기구로 언  
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무회의장에  
서 고품질의 우리 농식품을 적극 홍보  
해,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  
움을 드리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에 준비한 민생 선물  
세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우리 수산물  
을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  
리 어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5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예매하기



##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출연 김남호 김늘메 김준희 김민주 임재혁 정지환 이서정 이하정 차은진 김민성 서찬양 장이슬 석우성 손슬기 윤환호 김진솔 정다운 최린 김상원 서태이 양승환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운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 부산시, 2200억 규모 'BGF리테일 물류센터' 투자유치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첫삽  
2026년 가동·800여명 고용 예정  
항만 인접 등... 전국 최고 교통망

부산시는 3일 오후 2시 30분 BGF 리테일의 부산 신규 물류센터 건립 현장에서 기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박형준 시장, 홍석조 BGF그룹 회장,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기념사 및 축사 ▲기공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번 기공식은 박 시장이 취임 후 이뤄낸 두 번째 대기업 투자 유치인 BGF리테일의 부산 신규 물류센터 건립 투자가 본격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GF리테일은 대한민국 1등 편의점 씨유(CU)를 중심으로 물류, 식품 제조, 서비스 산업을 운영하는 대기업이다.

기공식을 시작으로 BGF리테일은 2026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강서구



3일 부산 강서구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에서 열린 BGF리테일 부산 신규 물류센터 기공식에서 BGF 홍석조 대표이사 부회장(왼쪽에서 첫번째), BGF 홍석조 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시삽하고 있다. /BGF리테일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4만 7000㎡ 규모 부지에 연면적 12만 8000㎡에 달하는 부산 신규 물류센터 건설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2200억원을 투자하고, 생산관리·현장 작업·배송 기사 등 운영 인력 800여 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BGF리테일은 이번 물류센터 신축으로 보유 중인 물류센터 중 가장 큰 물류센터를 부산에 갖추게 된다.

특히 물류센터가 들어설 국제산업

물류도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있고, 부산신항만과 인접해 전국 최고의 물류 교통망을 자랑하며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과도 인접해 있어 앞으로 이 물류센터를 수출 전진기지로도 활용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번 BGF리테일의 신규 물류센터 건립에 이어 앞서 투자유치한 롯데쇼핑, 쿠팡, LX인터내셔널 등 세계적 물류·유통기업들의 물류센터

까지 모두 부산에 조성되면, 이들 시설이 부산의 세계적 물류 거점 기반 시설과 상승 효과를 내 대한민국 물류 유통 산업 판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며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할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은 이미 세계 2위의 환적항, 세계 7위 컨테이너 항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통한 우수한 항공 물류망, 디지털 혁신 기술 등 세계적 물류거점으로서 충분한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대한민국 1등 편의점 씨유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할 전초기지가 될 신규 물류센터를 착공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3고(高) 현상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비제프리테일의 2200억이라는 과감한 투자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고흥군

#### 광주시립미술관과 문화예술 '맞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일 천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과 상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수실에서 공영민 군수와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서명 및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문화, 예술, 관광자원을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흥(경남)=양수영 기자

### 경남도

#### 폴란드 항공·방산사와 투자협약

경남대표단이 지난 2일 오후 폴란드 민스크 공군기지를 방문에 이어 바르샤바의 머큐어 그랜드 호텔에서 항공 엔진 MRO 전문기업 영에비에이션과 방산기업 매티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영에비에이션 정영근 대표이사, 매티스 박종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에비에이션은 2013년 설립된 민항기 엔진 수리 중심의 MRO 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 사천시 축동일반산업 단지에 국내 복귀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엔진 MRO 국내법인을 설립해 약 200억원을 투자하고 45명의 신규 고용으로 MRO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경남=손병호 기자

### 부산시-부산상의

#### '원스톱기업지원센터' 확대 개편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투자 지원과 애로 해소, 각종 기업 정책과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부산시 원스톱기업지원센터는 부산상의에서 근무하게 되고, 부산상의 내 기업 애로와 규제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규제개선팀'과의 업무 협업을 이뤄져 종전 3명이던 전담 인력도 6명으로 크게 늘었다.

부산상의는 이번 원스톱기업지원센터의 이전 및 확대 개편과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 산청군

#### NH농협과 '중소 금융지원' 나서

경남 산청군은 NH농협산청군지부와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감소·관심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협약(행정안전부-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특히 경기침체 심화와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

국정방향 부응하는 대응책 마련

경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방향에 부응하는 지방 차원의 선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대표,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및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 분석,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전문가 저출생 정책 제안 발표, 저출생과 전쟁 전략 홍보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구조의 전면 개편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이 지사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라 지적해 온 수

도권 집중과 교육 개혁 등 국가 구조 대전환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교육과 의료문제 개선을 제시한 만큼, 지역에서도 자녀 교육과 필수 의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정주민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시간 이내의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대학 집중육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으며 경북도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를 위한 Big Push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과 양육·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기준으로 사업 원점 재검토와 재설계 방침을 밝힘에 따라, 도는 정책 모니터링 단 등을 통해 기존 과제 점검, 예산 재조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 포항시, 추석 맞아 민생 현안 점검

비상진료체계 구축 등 논의

경북 포항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기관·단체장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포항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을 중심으로 연휴 비상 진료 대책과 안전 취약시설 점검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 기관·단체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지역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시

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키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방역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감염취약시설 선제 관리로 대규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명절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 분야별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집중호우·강풍과 같은 자연 재난에 대비해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조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포항)=나영조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의 날' 개막식에 참석해 양부남·정진욱·안도걸·조인철·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지역구 국회의원, 광주시의회 의원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 전국 최초 '국회, 광주의날' 개막 협력 통한 지방분권시대 서막 올라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 목표  
광주시, 각 정당과 정책협약  
韓 변화 위한 실험무대 의지

부-국회-정당 간 새로운 협력 시스템 마련,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자 기획했다.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 행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광주시는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는다. 정당은 '정책 실증의 장'으로 광주가 필요하고, 광주는 국회의 입법권·예산권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협약을 통해 정책파트너로서 공감대를 이뤘다.

실제 우리나라 지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따른 지역소멸,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로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의 우선 추진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국회, 광주의 날'이 2일 개막했다. 국회에서 '지자체의 날'이 개최된 것은 전국 최초다. 지방정부-국회-정당 간 협력 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2일 서울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 개막식을 열고 3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했다.

'국회, 광주의 날'은 2025년 지방자치시대 30년을 맞아 한층 업그레이드된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정

## '울산 지능형도시 서비스' 알린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참여

울산시는 3일부터 5일까지 고양 컨텍스트에서 개최되는 '2024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2024)'에 '울산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전세계 정부, 기

업, 전문가들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지능형도시 행사다.

울산 전시관은 '4차 산업 도약을 위한 신(新)울산 4.0 지능형도시 구축'을 주제로, '이동수단 구역', '에너지 구역', '생활 구역', '데이터구역'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울산형 지능형도시 서비스를 소개한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밀가루 대신 '가루쌀' 활용... 글루텐프리 제품 출시 잇따라

정부, 농가 애로해소 소비 독려

SPC삼립 '가루쌀 휘낭시에' 인기  
신세계푸드 가루쌀+현미 원료  
식물성 우유 '라이스 베이스드'  
오뚜기 글루텐프리 '비밀카레'

정부가 가루쌀 소비 활성화에 나서면서 식품업체가 밀가루 대신 가루쌀을 활용한 '글루텐프리'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연간 약 200만에 달하는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쌀 소비량 감소와 재고 과잉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오리온 뉴릉지. /오리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가루쌀 홍보행사장에서 소비확대 현안을 놓고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1985년부터 쌀 소비량은 매년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4kg으로 10년 전인 2013년(67.2kg)보다 10kg 넘게 감소했다.

가루쌀은 쌀가루와는 별개로 단단해서 쉽게 빵을 수 없는 일반 쌀을 대신해 개량한 별도의 품종이다. 전분이 둥글고 성글어 가루를 내기 쉬우며, 물에 불리지 않고 밀가루처럼 건식 제분이 가능해 빵과 면, 과자류를 생산하기에 유리하다.

게다가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이 소화장애,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지면서 '글루텐 프리'를 내세운 쌀로 만든 식품이 각광받는 추세다.

SPC삼립은 지난해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가루쌀 휘낭시에'를 내놨다. 가루쌀을 사용해 부드러우면서 촉촉한 식감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량이 소진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또 함께 출시한 식빵은 가루쌀을 활용하고 따뜻한 물로 반죽하는 탕종법으로 찰진 식감을 살렸다. 그리고 이달 중와플과 스틱빵 등 4개의 가루쌀 제품을 출시한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7월 식물성 대안 식 브랜드 '유아잇유잇'에서 가루쌀로 만

든 우유 '라이스 베이스드'를 출시했다. 가루쌀과 현미유 등 100% 식물성 원료를 배합해 만들었다. 유당불내증이나 콜레스테롤 증가를 우려하는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동물복지, 환경보호 등 ESG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오뚜기는 올해 카레 출시 55주년을 맞아, 글루텐프리 카레 '비(非)밀카레'를 출시했다. 모든 원재료에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았다. 오뚜기는 비밀카레를 앞세워 소화장애, 알레르기 등 밀가루에 함유된 글루텐에 민감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건강식을 선호하는 이들 중심으로 커지는 수요까지 잡는다는 전략이다.

오리온은 100% 국산 쌀로 만든 쌀과자 '뉴릉지'를 출시했다. 오리온농협 밀양공장에서 만든 제품으로, 오리온농협은 국산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오리온과 농협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마켓오네이처 오!그레놀라 및 오!그레놀라 바'를 비롯해 '태양의 맛썬', '치킨팝' 등 다양한 제품에 연간 1000t에 달하는 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 '뉴릉지' 또한 100% 국산 쌀로 만든 만큼 쌀 소비 증대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 기대하고 있다.

가루쌀 시장을 확대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가루쌀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식품업체가 가루쌀을 제품화 하는 것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만 라면, 식빵, 약과, 스낵, 디저트 등 40개가 넘는 가루쌀 활용 제품이 출시됐다.

하지만, 가루쌀은 수입산 밀가루보다 공급 가격이 높아 시장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가루쌀은 1kg당 3000~4000원대로 수입산 밀가루보다 2배 가량 비싸다.

정부는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가루쌀을 1kg당 1000원대에 공급하고 있다. 이후 가루쌀 재배면적을 넓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공급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루쌀로 만든 식품은 밀가루 소화 장애나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고, 농가 상생과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며 "또한 가치소비를 중시하는 MZ세대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판촉비 전가 의혹... 홈플러스 본사 현장조사

공정위, 무신사·동원F&B 조사도  
업계, 국감 앞두고 유통 압박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본사를 대상으로 6년간에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는 국감을 앞둔 상황에 이번 홈플러스의 현장 조사가 사실상 유통업계를 정조준 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조사관을 통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유통업체이나 대리점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 알아보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측은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정기조사다. 판촉비 관련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같은날 공정위는 무신사와 동원 F&B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나섰다.

동원 F&B는 서울 서초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불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무신사는 자사 입점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공정위는 무신사의 파트너십 협약서에 대해 세밀하게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무신사는 공정위 현장 조사가 처음이다.

같은 날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송파구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판촉비 비용 등 전가 의혹을 조사했다. 롯데마트가 빙

그레, 파스타 등 입점 업체들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같은 상황에 당황아 유통업계 전반이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감을 앞둔 상황에 향후 대상이 될 업체들이 추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공정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서면실태와 현장 조사를 이어온 만큼 유통업체들에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한달도 안남은 상황에 공정위의 압박이 시작됐다. 매년 비슷했지만 올해는 티메프 사태로 특히 유통업체로 시선이 정조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응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현대백, 부산 '커넥트현대' 6일 그랜드 오픈

4~5일 사전 개막행사 진행

현대백화점이 부산광역시에 새로운 리테일 공간인 '커넥트현대'를 선보인다.

커넥트현대는 '사람, 장소, 문화를 연결하는 플레이그라운드'를 표방하며, 현대백화점이 새롭게 제시하는 지역 특화 도심형 복합쇼핑몰이다. 백화점의 '프리미엄'과 아울렛의 '가성비', 미술관의 '문화·예술 체험' 등 다양한 업태의 강점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겠다는 포부다.

현대백화점은 오는 6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도심형 복합쇼핑몰 커넥트현대를 그랜드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공식 오픈에 앞서 4일과 5일 이틀간 사전 개막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커넥트현대는 지하 5층~지상 9층 규모로, 최신 라이프스타



현대백화점 커넥트현대 전경. /현대백화점

일 브랜드는 물론 부산의 특색을 살린 로컬 콘텐츠 등 총 240여 개 브랜드가 들어선다.

커넥트현대는 다채로운 문화적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를 겨냥해 매장 곳곳을 전시·체험형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최빛나 기자

## 남양유업, 당류 제로 커피제품 '인기'

프렌치카페·루카스나인 등 선배

남양유업은 대표 커피 브랜드 '프렌치카페'와 '루카스나인'의 당지감·무당 콘셉트 제품들을 앞세워 헬시플레이저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대표 커피믹스 브랜드인 '프렌치카페'의 성분 개선과 리뉴얼을 통해 당지감에 주력함과 동시에 프리바이오틱스를 함유해 건강함을 더했다.

또한 대체당 '스테비아'를 활용해 '당류 제로' 콘셉트의 '프렌치카페 스테비아 카페인믹스'를 선보였다. 당 의존도가

높은 믹스커피 제품에 대체당을 적용해 당류는 물론 열량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같은 인기로 힘입어 남양유업은 '프렌치카페 스테비아 디카페인' 제품을 추가로 출시하며 '당류 제로' 라인업을 확장 중이다. 프렌치카페 스테비아 카페인믹스와 디카페인 두 제품은 제로 트렌드 열풍을 타고 출시 이래 현재 기준 누적 7500만 봉을 돌파했다.

라떼 브랜드 '루카스나인'도 업계 최저 수준의 당 함량을 자랑한다. 루카스나인은 지난 6월 '라떼를 더욱 더 라떼

답게'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리뉴얼을 추진했다.

특히 루카스나인 시그니처 오리지널 라떼의 경우 기존 제품 대비 원두와 함께 우유 성분 함량을 높이면서 당 함량은 2.0g으로 동종 제품군 대비 최저 수준이다. 또한 1A등급 우유를 사용해 풍성한 거품으로 카페에서 즐기는 맛을 그대로 구현했다.

루카스나인은 현재 오리지널 라떼·딸기 라떼·더블샷 라떼·바닐라 라떼·아이스 라떼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이 있다.

남양유업은 인기 커피 브랜드를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추석선물대접'에서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SSG닷컴, 리움미술관 신진작가 굿즈 판매

패션·리빙 소품, 문구류 등 10종

SSG닷컴이 미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SSG닷컴은 '아트스펙트럼 2024 드림스크린' 한정판 굿즈를 3일부터 온라인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트스펙트럼은 리움미술관이 역량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해 국내외에 소개하는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 로고를 활용해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패션·리빙 소품과 문구류 10종을 씩당

컴 아트앤크래프트(Art&Craft) 브랜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연말까지 리움 미술관 스토어에서 취급하는 굿즈 전품목도 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오는 9일까지는 리움 미술관 멤버십 기프트카드도 5% 할인한다. 구매 고객은 사용 등록 후 1년간 리움·호암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전시를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미술관 카페와 뮤지엄숍 할인을 포함한 각종 행사에 다양한 혜택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 “직접 체험해보세요”… 뷰티업계, 소비자 중심 마케팅 강화

##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자음생 팝업 마련… 체험 행사

## 에이피알 ‘스페이스 도산’

신인류 주제 브랜드 정체성 강조

## 파뮤 ‘복춘비담’

관광지역 핫플레이스 협업

국내 뷰티 브랜드들이 오프라인 팝업 행사, 플래그십 스토어 등을 통해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3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스킨케어 브랜드 설화수는 팝업 행사를 통해 브랜드 대표 제품 ‘자음생’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행사는 오는 8일까지 서울 롯데 에비뉴엘 월드 타워점에서 열리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인삼 과학을 기반으로 개발한 설화수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인삼을 활용한 설화수 독자 성분 진세노믹스와 진생펩타이드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아모레퍼시픽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60년 인삼 과학 존’, ‘헤리티지 존’, ‘진생 앤 제이드 핸드 마사지’, ‘지함보존’ 등 각 구역에 마련된 콘텐츠를 통해 미션을 완성하면 경품도 제공한다.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이날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자사 브랜드



설화수 자음생 팝업스토어 현장 전경. /아모레퍼시픽

를 한데 모아 선보이는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로 ‘스페이스 도산’을 공개했다.

‘스페이스 도산’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의 규모로, 층마다 서로 다른 브랜드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지하 1층의 널디 브랜드 공간은 나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신인류를 주제로한 연출이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한다.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의 경우, 지상 3층에 미래 연구소의 모습을 갖춰 에이피알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뷰티 테크에 집중하게 한다.

이에 대해 에이피알은 ‘스페이스 도산’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브랜드별 특징을 알리면서도, 각 브랜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색다른 즐거움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 파뮤는 관광 지역 핫플레이스와 협업하고 있다. 파뮤는 오는 30일까지 서울 북촌의 한옥 카페 ‘복춘비담’에서 국내 소비자들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친다.

‘복춘비담’은 100년 이상 전통을 가진 복합문화공간 겸 카페로 서울시 8대 한옥으로 선정되고, 한옥 최초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한 바 있다. 파뮤는 꽃 등 자연에서 얻은 천연 원료를 중심으로 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북촌 한옥마을 고유의 전통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오프라인 팝업 행사는 브랜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마케팅 중 하나



스페이스 도산 내부. /에이피알

라는 것이 국내 뷰티 업계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팝업을 기획하는 배경에는 소비자층을 보다 폭넓게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크게 작용한다”며 “과거에는 하나의 브랜드에서 연령대별 제품을 뚜렷하게 구분하거나, 특정 소비자층에서 인기를 끄는 브랜드라는 확실한 이미지를 쌓는 전략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여러가지 경로에서 다양한 소비자가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하는 방안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비자마다 제품에 대한 기대치, 취향 등이 제각각인데 다 개인 맞춤형 시대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있다”며 “물론 실적 측면에서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출 의존도

가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오프라인 마케팅이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주요 유통 업체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화장품도 온라인 유통 매출을 끌어올린 주요 부문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 7월 기준, 오프라인 매출은 3.0% 감소하고, 온라인 부문 매출은 16.9% 증가해 온·오프라인 매출 격차는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장품 온라인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3% 상승해 서비스·기타, 식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SK케미칼, 편두통 치료 복합제 ‘수백스’ 출시

첫 복합제… 다양한 치료요법 기대  
2028년 시장 점유율 30% 목표

SK케미칼이 새로운 편두통 치료제를 선보이며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케미칼은 편두통 치료 복합제 ‘수백스정’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일 성분 치료제로 처방이 이뤄지는 국내 편두통 치료제 시장에서 두 가지 성분의 복합제가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백스는 편두통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립탄 계열의 수마트립탄 성분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나프록센나트륨성분을 한데 담은 복합제다. 이에 따라 각각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편두통을 치료하는 효능을 갖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백스의 수마트립탄 성분은 신경전달물질인 세로



수백스정.

/SK케미칼

토닌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나프록센나트륨은 신경염증을 억제해 준다.

SK케미칼에 따르면, 편두통 치료는 약 복용 후 치료 경과에 따라 원인을 규명하며 진행된다. 통상적으로 수마트립탄 제제를 처방한 후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에게 같은 성분 제제를 1

달 더 처방하거나 나프록센나트륨 성분의 치료제를 추가 처방한다는 것이 SK케미칼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SK케미칼은 수백스가 신경전달물질과 염증성 물질에 작용하는 두 가지 성분을 모두 함유해 다양한 치료요법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케미칼은 편두통 환자 1461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수마트립탄 단일제 투약 군에서 2시간 후 두통 완화 환자 비율은 55%였으나 복합제 투약 군에서는 65%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투약 후 24시간 동안 무통 상태를 유지한 환자의 비율도 단일제 투약 군에서는 35%였으나 복합제 투여 군에서는 4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SK케미칼은 오는 2028년까지 편두통 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을 3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 에이피알, ‘3캠퍼스’ 공개… PDRN 생산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뷰티 디바이스 중심 차별화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고부가가치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에이피알은 ‘에이피알팩토리 평택 제3캠퍼스’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제3캠퍼스는 에이피알의 세 번째 생산 거점으로, 뷰티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기존 제1, 제2캠퍼스와는 차별화된 것이 특징이다.

제3캠퍼스는 지상 2층 규모로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됐는데, 본관은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과 PN(폴리뉴클레오타이드) 전용 생산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완성된 PDRN 및 PN 소재를 활용한 스킨부스터 및 화장품 조제, 충전, 기타 포장 등과 관련된 시설까지 갖췄다. 원료, 스킨부스터, 화장품



에이피알팩토리 평택 제3캠퍼스 전경. /에이피알

등을 각각 개별 생산하기도 하지만 동시 생산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일겠다는 것이 에이피알 측의 설명이다.

특히 에이피알은 제3캠퍼스를 통해 연 최대 약 125kg 규모의 원료와 360톤 규모의 PDRN 화장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이피알은 자체 개발 공법으로 순도 높은 PDRN을 직접 생산하고, 중간 유통 비용을 낮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이청하 기자

## 오뚜기, ‘메디푸드’ 신사업 본격 추진

잇마플 협업 강화… B2B 영역 확대

종합식품기업 오뚜기가 메디푸드 스타트업 잇마플에 투자를 진행하고 신사업 협업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창립 55주년을 맞은 오뚜기는 미래 식품산업 성장에 발맞춰 메디푸드 산업 지식과 경험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5월 잇마플에 지분투자를 하고 같은 해 8월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잇마플은 2017년 설립된 메디푸드 전문기업으로, 신장질환에 특화된 메디푸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뇨, 암 등 다질 환으로 식사 조절이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건강식을 제공하고 있다.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고, ‘맛있저염’, ‘맛있저당’, ‘맛있저유’ 등 염분, 당분, 요오드를 줄인 식단을 정기 배송하는 등 각자의 건강에 특화된 식단을 내놔 호응이 높다. 또한 식단형

도시락, 덮밥, 간편식, 죽 등을 냉동 제품 형태로 만들어 질환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다 간편하고 쉽게 관리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자사물 ‘맛있저염’을 통한 B2C는 물론, B2B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이목을 끈다. 7월 잇마플은 ‘맛있저염 키친’을 구축하며 B2B 시장 확대에 나섰다. 또한 기업 대상 복지 프로그램인 ‘잇웰케어’를 출시했으며, 직장인에게 맛과 영양을 갖춘 저당·저염 제품을 납품하고 임상 영양사 상담을 함께 제공해 개인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한미약품, 中 상해의약그룹 협업 체계 구축

목앤 등 일반의약품 7종 현지 유통

한미약품이 중국 의약품 시장에서 기업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9월 중 중국 현지에서 상해의약그룹 자회사 상하이 파마 헬스 사이언스를 통해 자사 일반의약품 7종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번에 수출하는 제품은 인후염에 쓰이는 ‘목앤’, 비강보습제 ‘코앤’, 비염 및 코막힘 치료제 ‘코

앤’, 탈모 치료제 목시딜 3%와 5%, 소염진통제 ‘루마겔’, 국소마취제 리토카인 성분을 활용한 ‘파워겔’ 등이다.

한미약품은 이들 제품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시키고, 이어 홍콩 오프라인 약국 매장에도 진입시키기로 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계약을 기점으로 다양한 파트너사들과의 협력 범위를 넓혀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70년 전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화의 물결을 일으켰던 한국외국어대학교

# 미래의 중심, HUFS가 있다 세계와 우리, HUFS가 있다



70년을 넘어 100년까지  
학생이 성공하는  
HUFS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24. 9. 10.(화) 10:00 ~ 9. 13.(금) 17:00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BNK부산은행, 부산상공회의소 회원기업 금융지원**  
BNK부산은행은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부산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을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앞줄 왼쪽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한진-농협물류,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 전개**  
한진과 농협물류가 우리 쌀 소비 촉진에 나선다. 한진은 지난 2일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1층 로비에서 입주사 직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왼쪽부터)농협물류 최선식 대표, 농협경제지주 박서홍 대표, 한진 조현민 사장, 노삼석 대표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중기사랑나눔재단, 1.5억 상당 명절음식키트 나눔**  
중기사랑나눔재단은 4만명에게 총 1억5000만원 상당의 명절음식키트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추석명절음식 키트는 소고기국거리, 동태포, 당면 등 40여명이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전국 복지시설 300곳에 전달된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왼쪽)이 김동호 관악노인종합복지관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강성영 한신대 총장, 오산시의회 명예의장 활동**  
한신대학교는 강성영 총장이 2일 오산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7회 임시회에서 '오산시의회 명예의장'으로 위촉됐다고 3일 밝혔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가운데), 이상복 오산시의회의장(왼쪽), 이관재 오산시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신대

**고용노동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까지 '제41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와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대표선수 432명이 참가했다. 40개 직종(정규 18개, 시범 13개, 레저 및 생활기능 9개)에서 그동안 같고닮은 기량을 겨룬다. /김대환 기자 kdh@

**현대차그룹, 한미일 경제대화 돕는다**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 후원 "3國 경제·문화적 유대 기여"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이 한국과 미국, 일본 정재계 주요 리더들의 정책 세미나를 지원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제2회 한미일 경제대화(TED)'를 후원한다고 3일 밝혔다. TED는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정·재계 리더들이 모여 민주주의, 경제 발전, 국가 안보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다. 한미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적 번영, 국제 안보, 정부 시스템, 공유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는 취지로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범했다. 메인 스폰서인 현대차그룹은 TED와 견해를 같이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 3국 간 민간 및 정부 협력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2번째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번 행사에는 3국의 정부, 의회, 기업 등에서 주요 인사 약 100명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기선 HD현대그룹 부회장, 유정준 SK온 부회장, 홍범식 LG 사장 등이 함께한다. 미국은 연방상원의원 7명을 비롯해 알렉스 로저스 켈컴 사장, 해럴드 햄 콘티넨탈 리소시스 이사장 등 다

수의 기업인들이 참여한다. 일본은 도요타, 덴소, NEC, NTT 대표 등이 행사에 동참한다. 전략적 무역 및 투자, 바이오 보안, 에너지 협력,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기술과 민간 분야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방한한 참석자 및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한식, 국악,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의 조화로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행사를 후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한미일 3국의 경제 및 문화적 유대를 지속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김재욱 한국외대 교수 KLIC 10대 회장 취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김재욱 KFL대학원 교수(사진)가 지난 1일부로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재욱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문학박사를 취득한 후, 30여년간 학부와 대학원에서 형태론과 문법 교육을 강의하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제19대 이종언어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김재욱 교수는 "앞으로 협의회를 이끌며 한국어교육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넷마블문화재단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넷마블문화재단은 3일 오후 1시 더케이호텔서울에서 넷마블문화재단 김성철 대표와 본선 참가자를 비롯한 관계자 16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열정의 e공간, 행복한 e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3일과 4일 양일간 진행된다. e스포츠대회에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진행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특수학교(급) 학생, 지도교사, 특수학교 관리자, 학부모 등 1600여 명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대회는 e스포츠대회 10종목(마구마구 리마스터, 모두의마블 등), 정보경진대회 18종목 등 총 28종목으로 치러진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전자, 파리 패럴림픽 '빅토리 셀피' 운영**

"모바일 혁신기술로 전 세계 연결"

삼성전자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2024 파리 패럴림픽의 일부 종목과 경기에서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의 '빅토리 셀피'는 ▲장애인 태권도 ▲장애인 육상 ▲휠체어 펜싱 등 일부 종목과 일부 경기의 메달 수여식이 종료된 후 공동 취재구역에서 진행된다.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은 '갤럭시 Z 폴딩6 올림픽 에디션'으로 영광의 순간을 직접 촬영할 수 있다. 육상의 경우 시각장애인 선수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선수가 직접 촬영하지 않고 자원봉사자가 사진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31일 2024 파리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갤럭시 Z 폴딩6 올림픽 에디션으로 빅토리 셀피를 찍고 있다. /삼성전자

'빅토리 셀피'를 통해 촬영된 사진은 2024 파리 패럴림픽 참가 선수 전원에게 제공된 '갤럭시 Z 폴딩6 올림픽 에디션'의 '애슬릿(Athlete) 365' 앱에 실시간 연동된다. 선수들은 사진을 직접 다운로드 하고 가족, 친구, 팬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도 있다. 삼성전자 측은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함께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도 최신 모바일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패럴림픽 선수와 팬, 그리고 전 세계를 연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포스코그룹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가**

포스코그룹 6개 계열사가 합동으로 자사 탄소중립 역량을 알리기 위해 나선다. 포스코그룹이 2024년 9월4일~6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전시관 내부에는 ▲수소 생산 및 CCUS 기술(포스코홀딩스) ▲HyREX 기술 상용화 이전 기존 철강 공정 적용할 탄소저감 브릿지기술(포스코) ▲탄소포집 및 저장(CCS) ▲국내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 및 탄소 저감 발전기술(포스코인터내셔널) ▲이차전지소재사업(포스코퓨처엠) ▲구동모터코아 사업(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탄소저감 EPC 사업(포스코이앤씨) 등 그룹 사업과 기술을 전시한다. /박대성 기자



HD현대일렉트릭이 3일(화) 청주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에서 위치한 신공장 부지에서 중저압차단기 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이범석 청주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권오갑 HD현대 회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사장. /HD현대

**HD현대, '중저압 차단기 신공장' 첫 삽**

자동화 시스템 도입 스마트팩토리 공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생산라인과 물류를 자동화하고, 수요예측부터 자재, 완성품 입고출고 관리 등 AI 기반의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번 기공하는 신공장은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로 지어져 오는 2025년 10월 준

공 예정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생산라인과 물류를 자동화하고, 수요예측부터 자재, 완성품 입고출고 관리 등 AI 기반의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통해 제조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이번 기공하는 신공장은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팩토리로 지어져 오는 2025년 10월 준

- 인사**
- ◆기획재정부 ◇과장급 ▲재정건전성 과장 김완수 ▲재정분석과장 황희정
  - ◆해피랜드 코퍼레이션 ▲전무 임건희
  - ◆네이버페이 ▲Inno. Biz(이노 비즈) 총괄 부사장 조재박
  - ◆아시아투데이 ▲미래전략실장(부사장) 송태정

- 부음**
- ▲이영숙 씨 별세, 소재회(현대자동차 책임)·재은·은경(광명21세기병원)씨 모친상=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 20호실, 발인 5일. 02-3410-3151.
  - ▲이유분 씨 별세, 이이순·이규원(전 충북도의원·비바 대표)·이순례·이규임·이규석·이규화(디지털타임스 편집국장)·이선예(태경건설 대표)·이규용·이규섭(소정영농법인 대표)씨 모친상=3일 오전 2시50분, 충북 옥천성도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5일. 043-733-0808
  - ▲백석기(아시아투데이 고문·KODIC A 명예회장)씨 별세, 김영희씨 남편상, 백수현(IMG Artists Seoul 이사)·백상현(LF 마케팅 팀장)씨 부친상=2일 오후 4시2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5일. 02-3010-2000



나를 가장 나답게!

수도권 대학 최초 전면 자유전공제 실시,  
2024년 첨단학과 신설에 이어  
2025년, AI신약과와 자유전공학부로  
또 한 걸음 나아갑니다.

# 더서운 자유라



노위연 재학생  
(심리학전공 23학번)

## 자유전공학부로 자유로운 전공 탐색

1년 동안 전공 탐색 후 2학년 진학 시 계열과 무관하게 전공·학부 선택 가능  
계열 제한 없이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제1전공으로 선택 가능

※ 단, 유아교육과, 약학과, Art & Design 대학, 미래인재대학(가상현실융합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AI신약학과)은 제외









# “딥페이크 가해자 사적제재 자제를… 영상삭제 ‘핫라인’ 개통”

## 오세훈 서울시장 디지털 성범죄 예방책 토론회

익명 접수 SOS 상담창구 개설  
검출기술 ‘서울 안심아이’ 개발

삭제 지원 주체 국가→지자체  
조속히 법령개정 추진해 달라



오세훈 서울시장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인공지능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생성·유포되면서 남녀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세훈 시장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최근 인공지능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생성·유포되면서 남녀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까지 단 7초밖에 걸리지 않고,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가담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이라며 “특히 이번 사태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 특성상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사도 힘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피해 학교가 400~500곳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빠른 삭제에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피해 신고 24시간 안에 삭제할 수 있는 핫라인을 이미 개통해서 사용

하기 시작했다”며 “신고를 꺼리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 만큼 익명으로 쉽게 상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 창구도 개설했는데, 벌써 적지 않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피해 사실이 고통받고 있거나 나도 혹시 피해자가 아닐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늘 함께하겠다”면서 “아울러 딥페이크 가해자에 대한 사적 제재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를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는 진화하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매칭을 통한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검출 기술인 ‘서울 안심아이(Seoul Safe Eye)’를 개발하고, 검색부터 신고까지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AI 신고 자동화 시스템도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딥페이크 피해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

요한 만큼, 삭제 지원의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도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조속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시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피해자 상담, 영상 삭제, 법률 지원,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 2022년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딥페이크 피해자를 포함해 총 1437명에게 3만9764건의 피해 지원을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AI로 피해 영상물을 24시간 자동 추적·감시하고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해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평균 2시간에서 3분으로 단축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시는 올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UN 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이달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을 운영하는 등 피해 예방부터 재발 방지에 이르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그린벨트 지역 등 토지 이용실태 현장조사

### 서울시, 정기조사 안받은 곳 등 대상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 차단 목표

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과 연계한 이번 조사로,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 가 논란이 돼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다. 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하게 된 토지를 쓰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한 토지는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 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과 같은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현정 기자

## 파주시, 남북 교배품종 ‘평원벼’ 판매 개시

브랜드 ‘평화미소’… 오늘까지 예약

파주시는 국내 최초 남북 교배 품종인 평원벼를 파주쌀 브랜드 ‘평화미소’로 상품화해, 이번 추석에 햅쌀로 선보인다. 파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온라인 판매처를 통해 4일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30일, ‘평화미소’의 첫 출시를 앞두고 장단면의 평원벼 수확 현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의원들과 북한이탈 주민들로 구성된 임진강예술단 등 다수의 내빈이 모여 농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평화미소’의 성공적인 첫 출시를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다.



파주 민통선 지역 내 수확현장에서 열린 ‘평화미소’ 첫 출시 행사에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참석해 쌀 수확을 하고 있다. /파주시

‘평화를 원하는 벼’라는 의미를 담은 ‘평원벼’는 농촌진흥청이 남한의 진부 19호와 북한의 삼지연4호를 교배해 육성한 국내 최초의 남북 교배 품종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접수

### 대교협, 공동원서 통합회원 가입 당부

오는 9일부터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9일부터 진행되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들이 미리 대입 공동원서의 통합회원 가입 및 공동원서 작성을 하도록 당부했다.

공동원서 접수서비스는 한번 작성한 공동원서로 여러 대학을 지원할 때 활

용할 수 있는 원서접수 서비스다.

이번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4년제 대학이 9일부터 13까지 기간 중 대학별로 3일 이상이다. 전문대학은 1차 모집이 9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차 모집은 11월 8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다.

수험생은 ‘사전 서비스’ 기간을 활용해 수시 원서접수 기간에 앞서 ‘통합회원 가입’과 ‘공동원서’ 작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원서접수 대행사 유웨이애플라이 또는 진학어플라이 중 한 곳을 통해 통

합회원으로 가입하면 대행사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는 모든 대학에 지원 가능하다.

공동원서는 미리 가입한 ‘통합회원ID’를 통해 원서접수 대행사 사이트에 로그인해 작성한다. 공동원서 항목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 계좌정보 ▲출신학교 정보 등이다. 환불 계좌정보 입력 시에는 반드시 대학의 환불 시점에 사용이 가능한 유효 계좌번호로 입력해야 한다.

한 번 작성한 공동원서는 희망하는 여러 대학에 지원할 때 다시 활용할 수 있으며, 수정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이현진 기자 lhj@

오늘의 날씨

9월 4일 (수) 음력: 8월 2일

수도권 날씨 22~3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8/31, 동두천 19/31, 가평 17/31, 파주 19/31, 서울 22/32, 양평 18/30, 인천 23/31, 수원 22/32, 용인 22/31, 평택 20/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TSMC, 美 애리조나에 2나노 이상 첨단 공정 3공장 건설  
▲테슬라 8월 중국 판매 3% 증가-BYD는 30% 급증 /사진 뉴스스

▲프랑스, 25년 만에 신규 원전…플라망빌 3호기 가동 준비  
▲獨 BMW 전기차 미니 쿠퍼 SE 전세계 리콜, 약 14만대 해당



▲트럼프에 이어 해리스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입장 /사진 뉴스스  
▲네타냐후 연설에 여론만 악화…“역대 최악의 안보 실패”





밀가루 대신  
가루쌀 활용  
글루텐프리 제품  
↑  
니



Life

뷰티업계  
소비자 중심  
마케팅 강화  
L2



# “반려동물 사망원인 1위 ‘암’... 삶의 질 높이는 치료에 집중”

속깊은 인터뷰

임윤지 VIP반려동물암센터 원장

반려동물의 사망원인 1위는 놀랍게도 암(癌)이다. 무려 2마리 중 1마리가 암으로 사망한다. 실제 일본 도쿄 농동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아지가 사망에 이르는 질병 가운데 암이 전체 54%를 차지했다. 미국의 조사 결과에서도 개의 사망원인 가운데 암이 47%, 고양이의 경우 32%를 차지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달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암의 조기 발견이 어렵다. 특히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 내부 장기에 암이 자란다면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에게 암은 치료 없이는 한두달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다. 반려묘와 반려견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두렵고 아픈 병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문을 연 'VIP반려동물암센터'를 방문했다. VIP동물의료센터 청담점 2층에 자리 잡은 VIP반려동물 암센터(이하 VIP암센터)는 국내 유일의 반려동물 암 전문센터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종양진단, 종양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면역세포치료는 물론, 전이재발암케어, 호스피스케어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센터를 이끌고 있는 임윤지 원장을 만나 반려동물 암 치료에 대한 얘기를 상세히 들어봤다. 임 원장은 국내 유일하게 수의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16년 넘게 강아지와 고양이의 암 치료를 해 온 전문가다.



임윤지 VIP반려동물암센터 원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VIP반려동물암센터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 -반려동물의 암은 어떻게 발견되나.

“보호자가 만져서 느끼거나, 미용을 하러 갔다가 미용사에 의해 발견된다. 이 때문에 림프종양, 유선종양, 피부종양 등이 반려동물에서는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종양이다. 환자 컨디션이 좋지 않아 검진을 하다 발견되는 암은 이미 전이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 -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하나.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직검사, 생검을 통해 진단이 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이후 어떤 종양인가에 따라 치료 방법과 순서를 정한다. 치료 방식에는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 면역치료 등이 있다. 반려동물의 암 치료는 대체로 1년의 생존을 목표로 한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한두달내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동안 고통없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은 반려동물과 보호자에게 큰 의미가 있다.”

## -VIP반려동물암센터가 가진 강점은 뭔가.

“기존 암센터들은 종합병원에 귀속된 형태였기 때문에 단독 암센터가 지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IP암센터는 다양한 치료 방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몸이 손상을 줄이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제공할 수 있다.”

## -암센터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10년 전만해도 심장, 심부전과 같은 노령성 질환은 치료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에 제세동기를 이식할 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보호자들이 고려하는 반려동물 치료 예산도 1000만원 단위까지 높아졌다.”



VIP반려동물암센터의 방사선치료실.

## 반려동물 암 조기발견 어려워... 사망률 높아 종양수술부터 재발케어까지 암 전문센터 운영

## 국내 유일 수의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 보유 절제 최대한 줄이면서 재발 최소화 방법 고민

이제 반려동물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겠다는 수요가 높고 있기 때문에 암센터를 찾는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임 원장은 일본동물병원협회 수의내과 인정의(JAHA Certified Veterinary Internist)이자 일본수의종양학회 인정의(JVCS certified Veterinary Oncologist) 자격을 갖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격증이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분당에서 개인 반려동물암센터를 운영하다 지난해 VIP암센터로 합류했다.

## -종양학 전문의를 선택한 계기가 있다.

“오랜 기간 수의사를 하다보니, 돌보던 환자들 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직접 겪어 보니 나이가 들어 사망한 환자의 30~40%가 종양이었고, 암에 걸린 줄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 일본에서는 이미 반려동물의 노령성 질환, 종양에 대한 다양한 치료를 하고 있었고, 공부할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국내에는 아직 없는 자격증인가.

“국내 수의학과 역시 피부과, 안과 등으로 전문의를 양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분과별로 전문의 코스가 따로 있는 미국과 일본처럼 전문의 자격이 세분화 돼 있지는 않다. 일본에서 수의종양학회 자격증을 받은 것은 외국인으로는 유일하다.”

## -종양학 전문의로서 가진 경쟁력은 뭔가.

“외과의가 바라보는 종양과, 종양학 전문의가 바라보는 종양은 차이가 크다. 쉽게 말해, 외과의는 그냥 떼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종양학 관점에서는 절제를 최대한 줄이면서 재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그동안 반려동물의 종양은 외과 수술로만 대응했기 때문에 종양에 대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적었다. 반

려동물의 종양 재발률을 줄이고,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고려한 치료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VIP암센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용 방사선 암 치료기 ‘LEP300 V2.0(이하 LEP300)’를 설치한 곳이다. 이 곳에 있는 LEP300은 토종 동물용 의료기기 전문업체 아우라케어가 반려동물 치료 목적으로 개발한 세계 첫 방사선 암 치료기이다. 이 덕분에 VIP암센터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수술, 항암치료 외에도 방사선 치료라는 옵션은 하나 더 가질 수 있게 됐다.

## -방사선 암 치료기가 들어온 장점은.

“기존 종합병원 내에 귀속된 형태로 들어가 있던 반려동물암센터는 암 치료의 3가지 방법으로 여겨지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중 방사선 치료는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서울동물종양심장센터나 양산의 에스동물암센터 등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VIP암센터에서는 센터 내부에서 방사선 치료 옵션을 포함한 종합적인 치료 계획을 세워줄 수 있다.”

## -방사선치료 효과는 어떤가.

“올해 1월부터 치료를 시작했고, 그동안 10마리 가량의 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치료는 수술과 항암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 만의 효과가 어떻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그만큼 환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특히 두경부암과 같이 수술이 쉽지 않은 암에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반려동물의 암이 치명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보호자들이 선택 치료를 결정하기엔 여전히 장애가 많다. 반려동물의 암 치료 비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사람의 치료 비용보다 3~5배 이상 높다. 치료의 목적도 암의 완치보다는 생존 기간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 원장은 반려동물 암 치료를 위해서는 보호자들의 인식 변화와, 암 치료비를 보장할 수 있는 사보험 마련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고가의 치료비가 가장 부담이 될 것 같다.

“반려동물 치료 예산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암 치료의 비용을 모두 감당하기 여전히 쉽지 않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사보험)이 생겨나고 있지만, 이 역시 평균 7살 이상이 되면 가입이 어렵고, 암에 대한 특약이 포함된 상품도 아직 없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 동물용 방사선 암 치료기 설치... 선택 폭↑ 삶의 질 높이는 호스피스 치료도 고려해야 노견일수록 정기검진... 조기발견 가장 중요

## -보호자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암 치료에 대한 인식의 변화다. 반려동물의 암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고통을 받다 한두달 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꼭 완치가 아니더라도 좀 더 오래,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데 가치를 둔다면 치료를 받을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다. 수술뿐 아니라 항암과 방사선 치료 등 치료를 위한 선택지도 다양하다. 또 완치나 생존기간 연장을 목표로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 개념의 치료도 있으니 치료에 대한 생각을 넓히고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 -암으로 인한 사망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암도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 조기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다. 반려견과 반려묘가 7살이 되면 매년, 9살이 되면 6개월 간격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김택연·오스틴·원태인·손호영 등 8명, KBO 8월 MVP 경쟁  
▲김민재·손흥민·이강인 합류... ‘홍명보호’ 완전체 첫미팅 열어 /사진 뉴시스

▲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 이적  
▲한종일 ‘바둑 삼국지’ 농심신라면배 4일 개막



▲‘보치아 간판’ 정호원, 2024 파리 패럴림픽 금메달 쾌거 /사진 뉴시스  
▲한국, U-18 농구 아시안컵 첫판서 인도에 72점 차 대승